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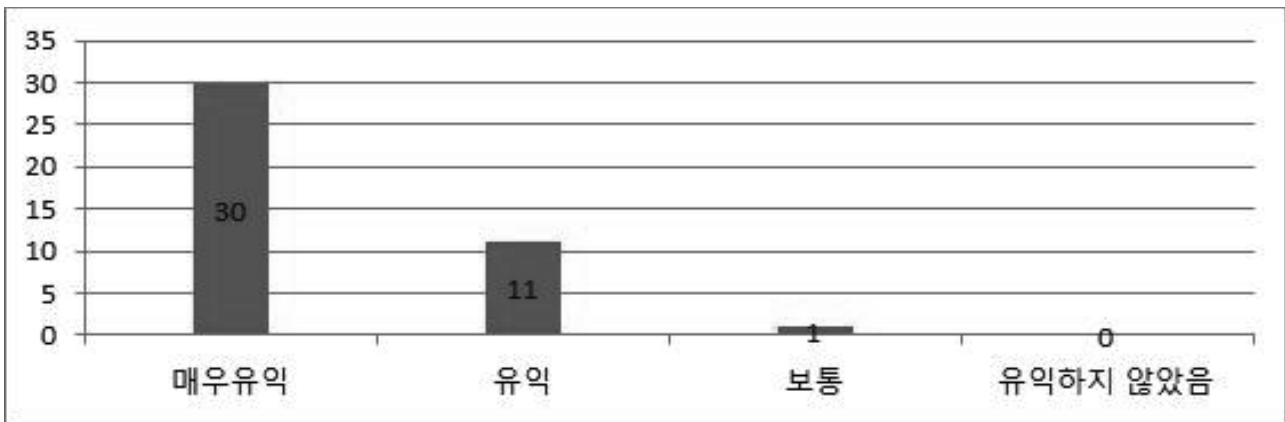
[부록 2]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 조사 결과**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설문(의견)조사 결과

1. 조사기간 :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기간 (11월 2일)
2. 조사방법 : 회의장 현장 설문조사
3. 조사대상 : 서울 회의장 참가자 (한일 양측 기업인 등 98명)
4. 응답자수 : 42명

■ 회의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 유익했다면 그 이유는?

-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한일기업인간의 협력 분위기 제고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 한일경제인의 살아 있는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현재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모든 면에서 잘 파악할 수 있었다.
- 침체와 후퇴의 한일 관계가 코로나 이후 발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일 협력과 최태원 회장의 깊이 있는 기초연설은 경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음.
- 향후,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일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 형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 한일경제인회의가 69년 처음 개최된 이래 한번도 중단된 적 없이 양국 경제인들이 모여 상호 관심 사항과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한다.

- 다양한 주제와 논의가 모두 시의적절하였으며(2), 미래 산업의 수소에 대해서 정보는 물론 새로운 한일 패러다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일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서 동 회의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한다.
- 일본 경제인들이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과 향후 방향성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 지속적인 한일 협력 관계 유지 노력이 필요하며,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 양국 경제인들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미래 창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한일간의 교류가 절실함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으며, 특히 최태원 회장의 기조 강연 내용이 좋았다.
- 발표자 4분의 발표 내용이 모두 매우 흥미있었다.
- 다양한 의견, 생각을 알수 있었으며, 매년 1회 이러한 회의를 개최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유익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한일산업기술페어2021에 맞게 산업기술의 기본인 원자재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

■ 평가의견

- 한분 한분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돈독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한일간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인들의 이러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양국의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의 교류를 확장하는 방안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양국을 순조롭게 잘 연결하면서 진행된 회의였다. 양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잘 작성되었다고 생각한다.
- 어려운 시기에 개최된 만큼 더 의미 있고, 뜻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한다.
- 회의 직전까지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된 회의였다.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 간의 기술협력증진을 기대한다.
-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하여 파악한 내용으로 발전적인 결과를 차후 회의에서 성과보고가 되고,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 전반적으로 회의는 좋았으나, 한일 간 경제 이슈 문제점과 대응책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 대면보다도 훨씬 대면 같이 상호 고민한 내용을 압축해서 서로의 생각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였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함께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일 양국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대면 회의를 준비하는 주최측에 감사를 드린다. (2)
- 한일협력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도 필요하다.
- 일본측은 시대에 맞지 않는 주제인 듯하다. (과거와 같은 테마가 반복)
- 한일협력으로 원자재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를 희망한다.
-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함께 창조하는 한일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일경제인회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치를 배제하고, 순수한 경제인들의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경직된 한일관계 회복이 절실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과 일본은 친구, 서로 도와야 모두가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내년에는 꼭 대면 회의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 제언 건의

- 한일 취업 박람회 활성화 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모색해 주기바란다.
-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자료를 컬러로 인쇄 제작해 주기바란다.
- 한국과 일본의 상호 경제적 산업적 시너지 창출을 위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비대면 그리고 곧 있게 될 대면의 시대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 및 역사적인 문제로 경제보복 등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다가온 with Corona시대에 상호간 자극적인 언행을 삼가고, 경제적인 교류는 물론,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추진 되었으면 한다.
- 조속히 묵은 감정을 청산하고, 양국 간에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북방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협력 사업으로서 비즈니스가 개시되고 우호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으로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하고,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일 없이 양국 간 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오랜 기간 협력해 오며 많은 성과를 이뤄냈던 한일 양국 기업은 향후 더욱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한다.

- 거대한 중국 생산 중심의 경제 방향을 맞서서 한국과 일본의 활발한 첨단과학 교류를 바탕으로 중국 중심에 맞설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 한국과 일본은 동반성장형 긍정경쟁이 가능하다. **한일간의 역사적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경제 문제는 순수한 민간베이스로 협력방안을 단계별로 로드맵을 마련하여 양국의 정부와 언론 등이 이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OVID-19 팬데믹 이후 양국에서 기존보다 더욱 활발한 (대면)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학생들(초/중/대)뿐만 아니라 좋은 사업제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Business 목적의 교류회가 많았으면 한다.
- 제52회 회의에서 주제 발표되었던 한일 간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경제계 중심의 완전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포트폴리오 수립과 실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재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한일경제인의 모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제, 경영, 무역, 수출입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의 양국 분업 관계부터, 기술협력, 직접투자 등 상호 양국의 협력을 통한 조인트벤처 확대 등의 단계를 거쳐, 미래 자원개발, 전산업을 아우르는 인프라 분야의 제 3국 공동진출에 이르기까지 한일간의 경제협력모델에 대한 논의를 심층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부록 3]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디지털 혁신

삼성KPMG 이동근 Partner

2021년 1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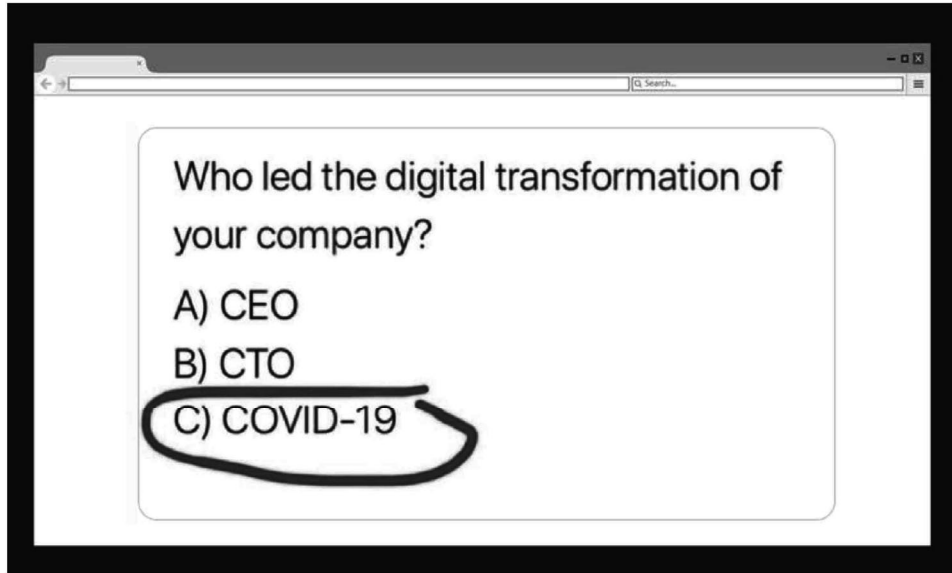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 I.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혁신
- II. 포스트 코로나, 기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

Intro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퀴즈



Source : Digital Transformation Quiz – SUSANNE WOLK (TWITTER)

디지털 혁신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성공하지 못한 디지털혁신 사례는 매우 많으며, 주된 이유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기 때문임

성공하지 않은 디지털 혁신 사례 예시



디지털 가상 디자이너 프로그램 폐기



Nike+ Fuelband 트래커 투자 중단

BURBERRY

최고의 디지털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실적 저하



디지털 혁신에 대대적 투자 후 비용 및 품질 이슈로 주가 하락



"The Most Digital Company on the Planet" 추진(12) 이후 성장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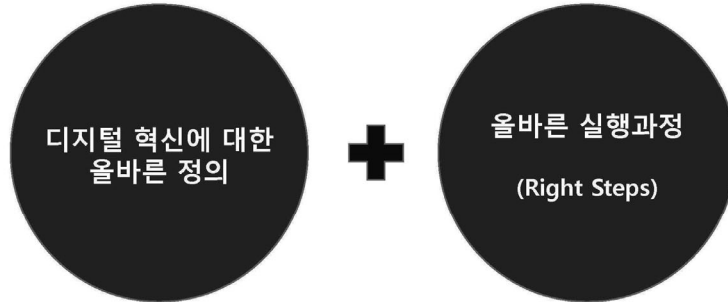
디지털 혁신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 1 디지털 역량 외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를 무시
- 2 디지털 혁신은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는 지속적 프로세스임을 간과
- 3 산업 특성과 경쟁환경을 무시한 무리한 디지털 과제 추진
- 4 디지털 기술이 기존 전통적 기업가치 보다 우월하다는 착각

Source : Harvard Business Review (2018)

디지털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올바른 정의, 올바른 실행과정 및 디지털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필요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것
비즈니스 모델, 조직구조, 일하는 방식,
프로세스, 기업문화 등

리더가 직접 챙겨야 함
디지털 리더로의 리더십 변화

코로나가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

단기적으로 오프라인 백화점의 몰락 등의 산업별 영향을 넘어, 코로나 시대는 변화가 급속히 빠르다는 점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핵심임

The New York Times

The Death of the Department Store: 'Very Few Are Likely to Survive'

Shuttered flagships. Empty malls. Canceled orders. Risks of bankruptcy. The coronavirus has hit the behemoths of the retail world.



Source : The New York Times (2020. 4)

Our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 — the World Before Corona and the World After



By Thomas L. Friedman
Opinion Columnist

“코로나 이후 어떤 변화가 닥칠지 완벽하게
예견할 수는 없지만,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과 무척이나
다른 모습일 것임”

포스트 코로나, 기업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CEO의 75%는 코로나 19가 디지털 고객 경험 생성을 가속화하며, 22% 이상이 '디지털 혁신이 급격하게 가속화되어 예상보다 몇 년을 앞지르고 있다'고 응답

디지털 소비자 경험에 대한 가속화 진행



- 몇 년을 앞지르며 빠르게 발전
- 몇 개월을 앞지르며 빠르게 발전
- 예전과 비슷한 속도로 발전
- 발전 속도 저하

"클라우드 또는 차세대 디지털 솔루션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저항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Steve Hasker
President and CEO, Thomson Reuters

"디지털 기술이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요소로, 기업은 미래 비즈니스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Mark A. Goodburn
Global Head of Advisory, KPMG International

Source : KPMG 2020 CEO Outlook : COVID-19 Special Edition

① 기능/산업의 비대면화(Untact)

기업의 업무 기능 수행에 있어 사람 간 접촉 최소화 및 기존 산업의 비대면화(원격 교육, 원격 의료 등) 가속화

KPMG US 서베이 ('20.4월)

"코로나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디지털 뱅킹 사용" 22%

"향후 3개월 금융사 지점 방문의향 없음"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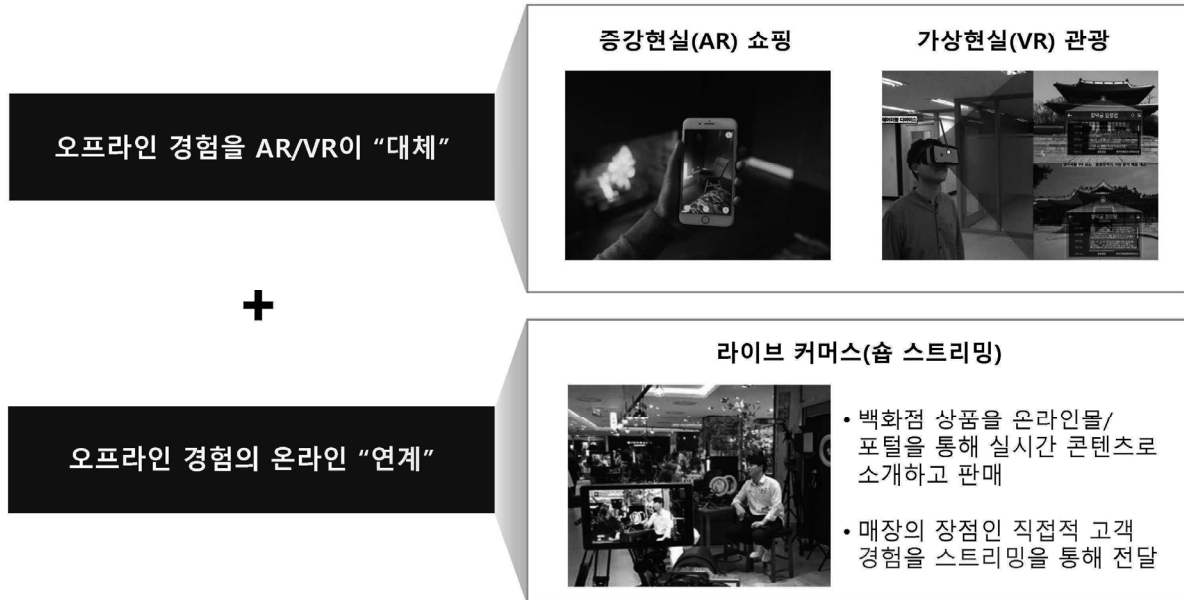
"코로나 종료후에도 지점 방문 줄이거나 아예 방문 안하겠음" 24%

※ 포스트 코로나에도 Untact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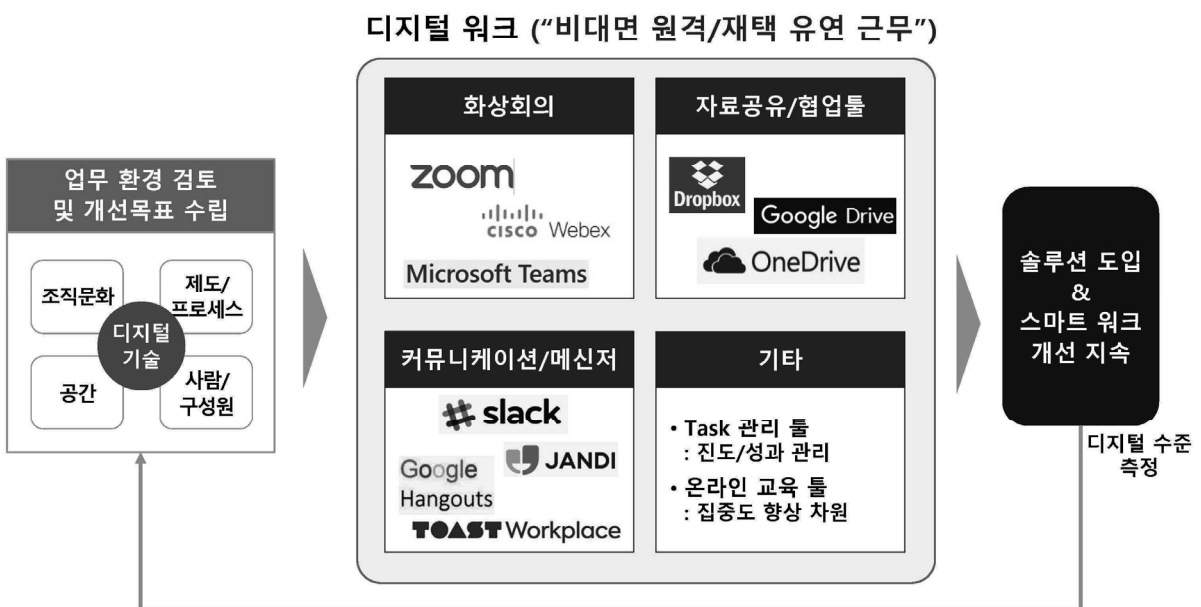
② 온라인 역할 강화 (오프라인 경험 보완)

코로나19로 고객이 온라인으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오프라인 경험의 부재를 온라인이 대체/연계 (→ 포스트 코로나에는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오프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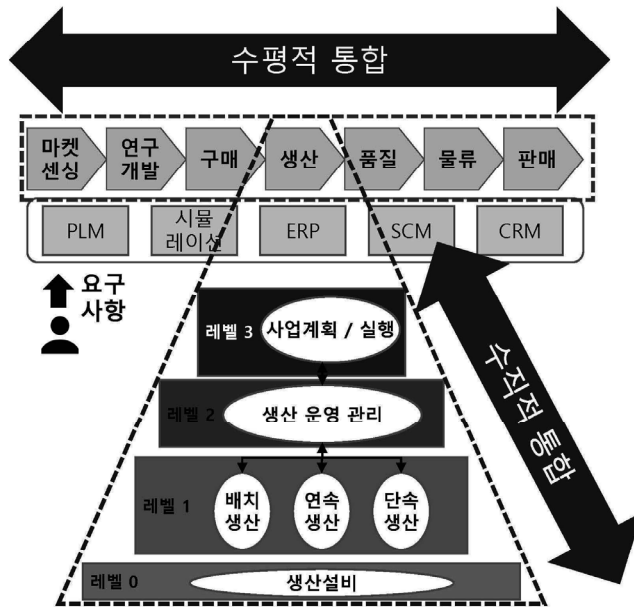
③ 디지털 워크 부상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업무 경험 혁신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디지털 워크 부상



④ 스마트 팩토리 확산 (공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공장의 생산설비 자동화를 통한 수직적 통합 및 시장/고객 센싱-구매-생산-물류-판매에 이르는 수평적 통합을 통한 비즈니스 최적화



수평적 통합 (내외부 가치사슬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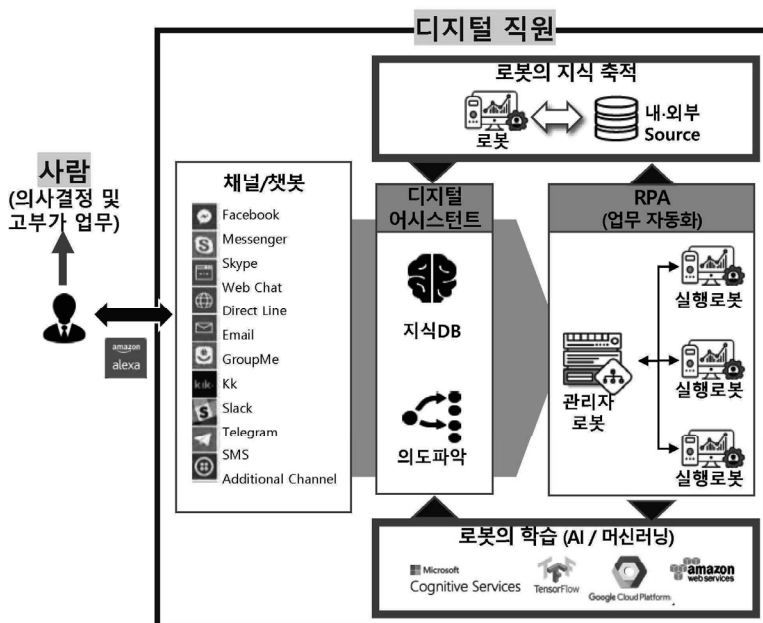
- 시장/고객 니즈로부터 Value Chain 기반 적시에 최적의 효율로 공급
- 포스트 코로나 급작스런 수요 변동에 대해 온디맨드 대응

수직적 통합 (생산시스템 통합)

- 자동화, 무인화로 생산 중단 최소화
- 온쇼어링(해외 진출 국내 공장 유턴) 대응

⑤ 디지털 직원 (RPA+AI) 확대 (사무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직원(RPA+AI)의 인지기능 강화 및 사람과 협업 가능한 환경 가속화



RPA는 주52시간 제약 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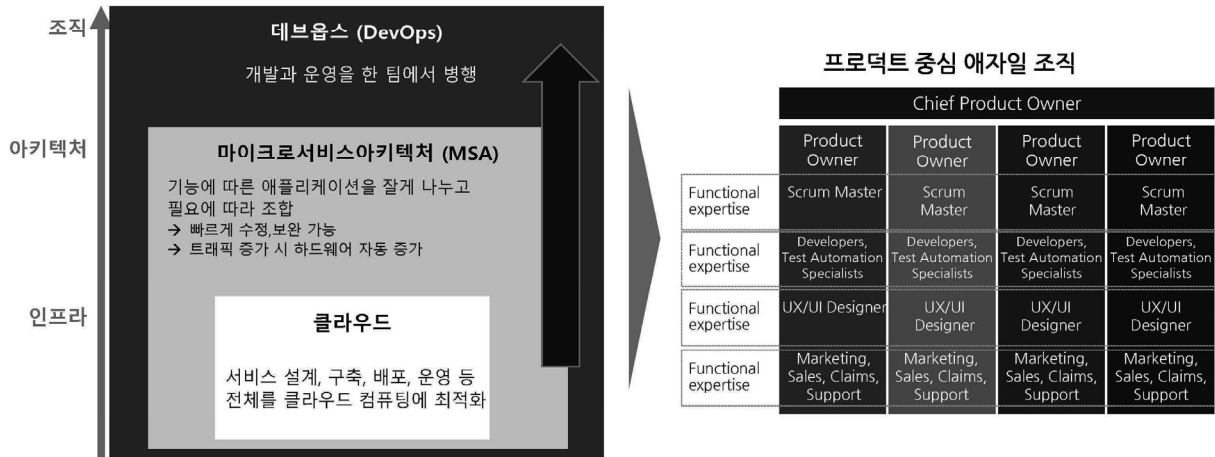
OCR(광학문자인식), 자연어 처리기술과 융합하여 자동화 영역 확대

디지털 직원은 지속적으로 지식 축적 & 학습

사람은 고부가 업무에 집중 (위라벨 & 창의적 조직문화)

⑥ 클라우드 네이티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IT인프라에서부터 조직이 일하는 구조까지 모두 재설계하는 과정



"데이터센터일때 하던 방식을 클라우드로 옮겨 놓기만 한다면 이전부터 겪던 문제와 한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일 뿐이다"
- 넷플릭스 클라우드 부문 부사장

Table of Contents

I.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혁신

II. 포스트 코로나, 기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

디지털 혁신 전략 이해하기

디지털 기술로 어떻게 회사의 비즈니스/운영 모델을 바꿀 것인지를 고민하는 '디지털 혁신 전략' 수립 필요

디지털 혁신 전략

디지털 기술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것인가

vs.

디지털 기술 기반 기업 전략

AI, BigData, Cloud 등
디지털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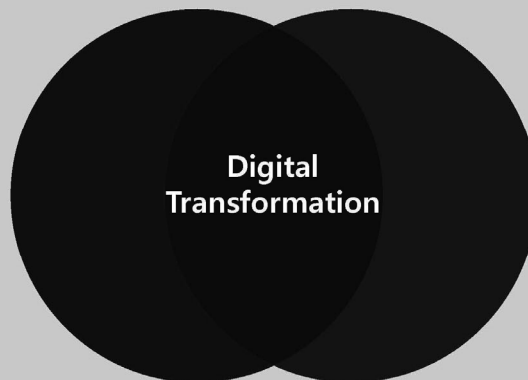
온라인 매장을 열었다고 해서
'디지털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혁신 정의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혁신(Digital-driven business Transformation)

“Digital”은 현재
우리회사의 비즈니스 환경

- 방대한 데이터가
연계·활용되어
보다 좋은 의사결정과
실행될 수 있는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는 환경



“Transformation”은
새로운 전략 목표를
달성하거나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회사의 조직적 진화

“Digital Transformation”은 비즈니스 혁신임.

Digital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구축하여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회사의 비즈니스를 혁신하여 고객의 가치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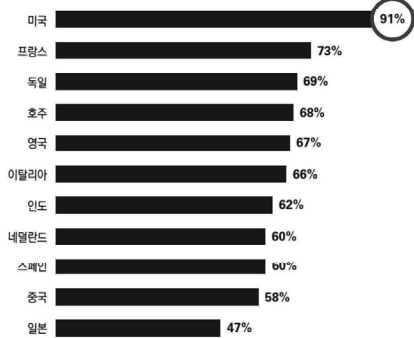
Q1. 경영진 주도의 디지털혁신 목표 설정 및 실행되고 있는가?

II. 포스트 코로나, 기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혁신은 Bottom-up 방식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음
: 코로나19 충격 최소화 &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신속한 Top-Down 의사결정 체계 핵심

사업운영 모델 변화에 대한 CEO 준비수준

CEO의 71%는 급격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자사의 사업 운영 모델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



특히 미국 CEO중 91%는 First Mover 가 되기 위해 노력

Source : 2018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JOHN DEERE

*“농기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팝니다.”*

새뮤얼 알렌(Samuel Allen) 존디어(John Deere)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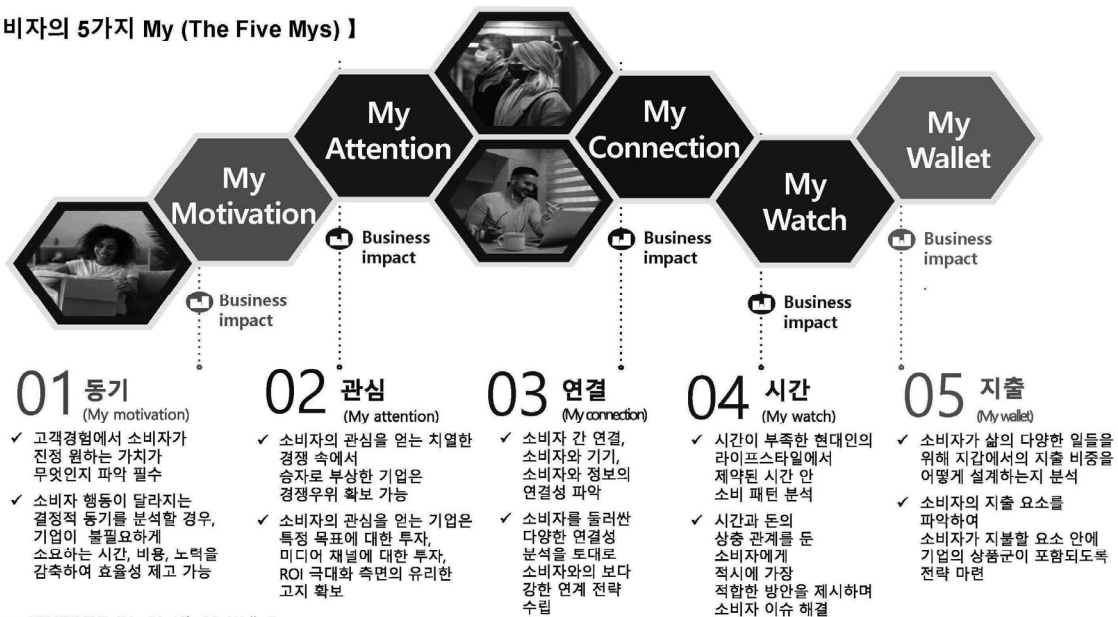
- 1837년 설립된 농기계 제조업체
- “디지털 솔루션 기업” 비전 설정 & 실행
 - “농부들이 농기계를 매년 사지는 않지만, 데이터는 매년 필요하다. 그들에게 정보와 조언을 판매하는 것이 더 지속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 매출 약 45조원 (2017)
 - 1,000명 이상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보유

Q2. 소비자 변화를 포착하고 있는가?

II. 포스트 코로나, 기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니즈 변화를 포착하여 고객중심적 전략을 실행하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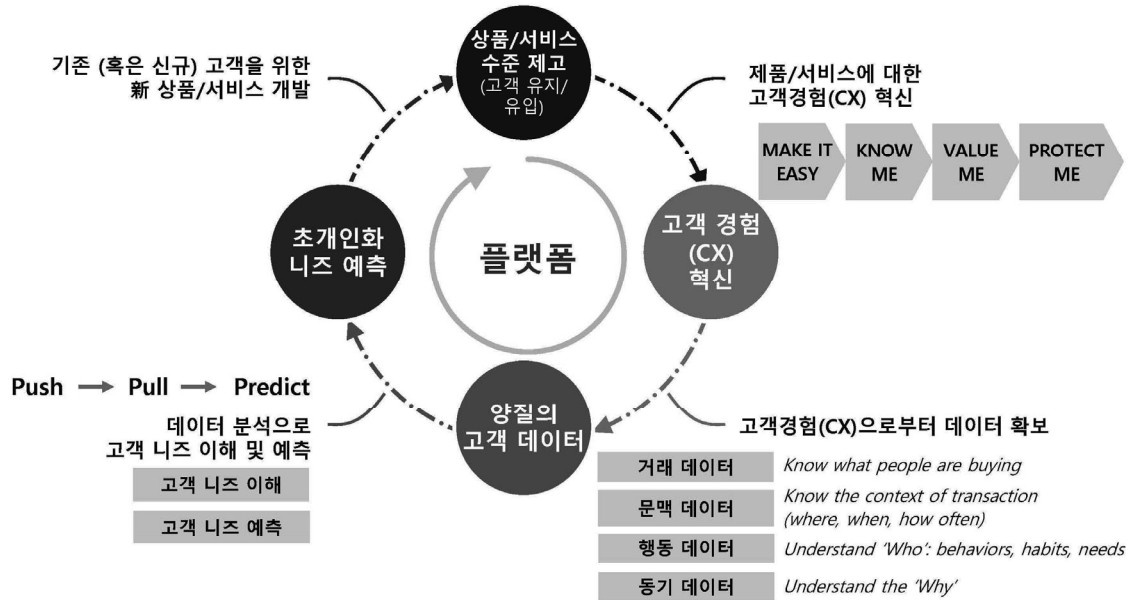
【 소비자의 5가지 My (The Five Mys) 】



Source : KPMG(2021), “Me, My Life, My Wal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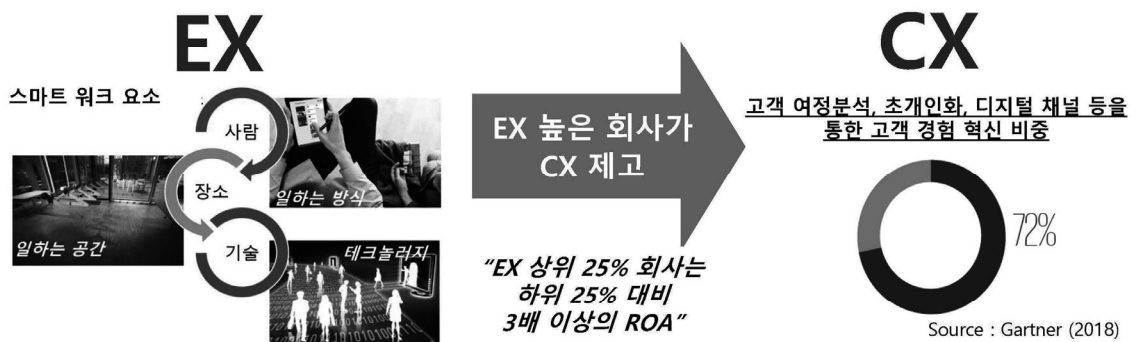
Q3. 플랫폼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고 있는가?

플랫폼 기반으로 “고객경험 혁신→양질의 데이터→초개인화→상품/서비스 수준 제고”라는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여 기존 고객 Lock-in 및 신규 고객 유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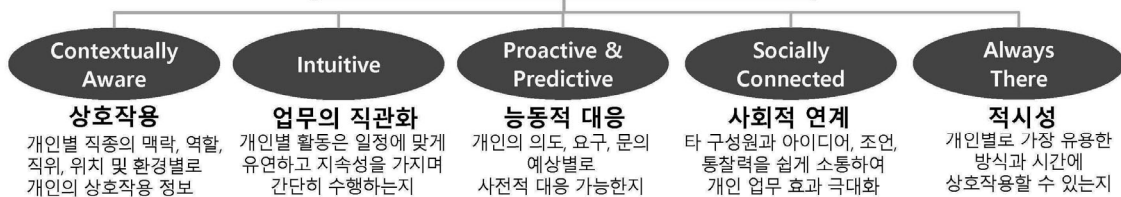


Q4. 디지털 기업문화를 갖췄는가? (EX + CX)

Customer(+Employee) 경험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 인재 유치/유지, 지속 성장 견인 : 디지털 기반 사람 중심의 일하는 방식(Way of Working) 혁신



EX 혁신의 핵심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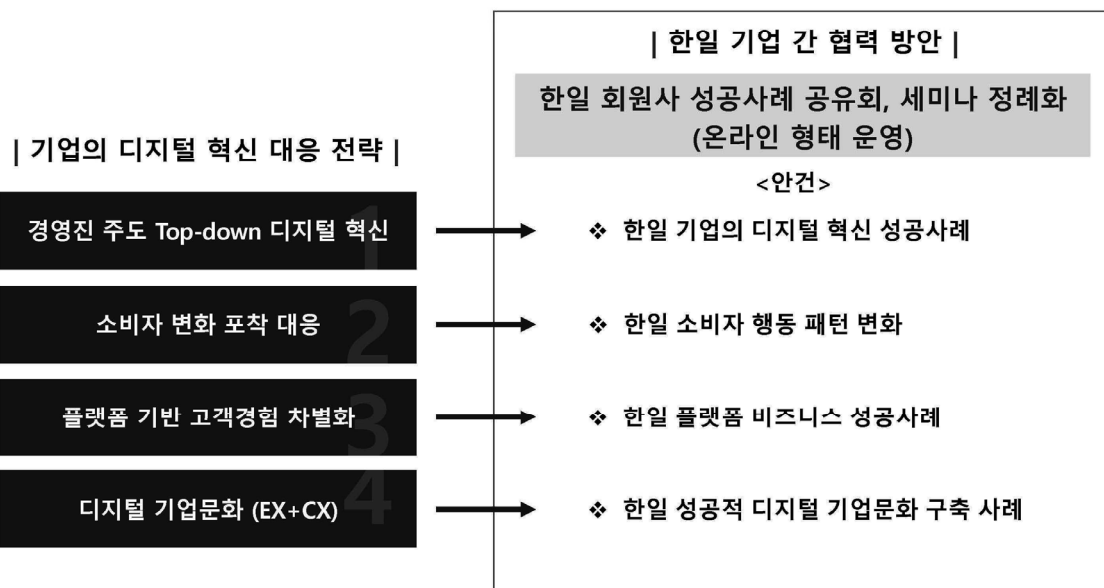
Summary

포스트코로나 환경 변화에 적합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여 경영진 주도로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 확보 및 디지털 기업문화 정착



제언 : 디지털 시대의 한일 기업간 협력 방안

앞서 제안한 기업의 디지털 혁신 대응 전략 별로 한일 회원사 성공사례를 온라인 설명회, 세미나 형태로 기업 간 상호 교류 증진 제언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 상황

~ 현장 보고 ~

2021년 11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한국미쓰이물산(株) 대표이사 사장
모리야마 토모유키

1

발표 순서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 (1)개요
 - (2)한국 사회 및 국민과의 교류
 - (3)일본인학교 운영
2.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
 - (1)진출기업수
 - (2)투자실적
3. 주한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 (1)SJC회원수 변천
 - (2)JETRO조사를 통해 본 일본기업 현황
 - (3)한일문제
4. 향후를 내다보며
5. 우리의 바람

2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1)개요

1997년 3개의 일본계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 한국내 최대급 일본계 공동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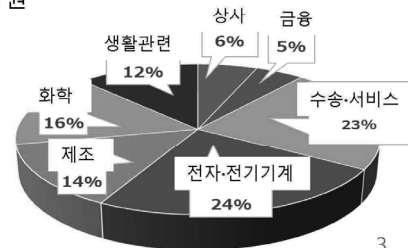


서울재팬클럽
(1997년 설립)

- 회원수 : 법인 351개사, 개인 1,297명 ※2021년 9월 8일 현재
- 연간 예산규모 : 약10억KRW ※일본인학교 관련자산 제외
- 상공회 활동 : 건의사항 제출, 법인 대상 세미나 및 스터디, 시찰 및 연수의 기획과 실시
- 활동 목적 :
 - 회원 상호간 친목 및 계몽, 복지 향상
 - 한일 양국간 친선, 한국사회에 대한 공헌
 - 한일 양국 경제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지원

회원기업 351개사의 업종별 구성

상사	21 개사
금융	17 개사
수송·서비스	80 개사
전자·전기기계	85 개사
제조	49 개사
화학	56 개사
생활관련	43 개사



3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2)한국 사회 및 국민과의 교류

문화교류 (2019년, 2020년 실적) (★사진)

● SJC주최 사업

★ 제17회 한일가라오케대회(2019년)



● 후원·협찬사업

- 2019년도 한일 젊은 음악가 교류 콘서트 from Switzerland (국제교류기금)
- 2019년도(제21회), 2020년도(제22회) 전국 중·고등학생 일본어학력경시대회 (한일협회)
- 제5회 한일청소년교류회 「한 마음, 한 목소리」 (한일협회)(2019년)
- 2019년도(제7회), 2020년도(제8회) 전국 대학생 일본어 번역대회 (한일협회)
- 한일축제한마당 2019, 2020 in Seoul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
- 제6회, 제7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일본대사관)
- 2019, 2020한일공동세미나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 ★ 제15회, 제16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JETAA 대한민국 지부)
- 2019년도(제8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대회 (한국대학생 디베이트대회 운영위원회)
- 제4회, 제5회 일본유학&취업페어 (한일협회)
- 2019년도故 이수현 추모 사진전 및 영화상영회 (국제교류기금 서울일본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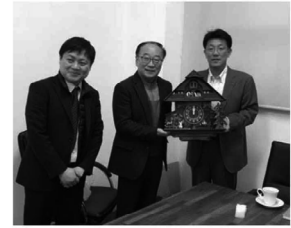
4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2)한국 사회 및 국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사진)

기부처(9군데) (2019년/2020년 실적)

- 노인요양시설 경주나자레원
- 아동복지시설 꿈이 있는 마을(보화보육원), ★동명아동복지센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혜심원, 목포공생원
- 기타 곰두리축구협회(장애인) 배리어프리영화협회
- COVID19관련 전국재해구호협회 (2020년만)



사회공헌활동(4건) (2019년 실적,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지)

- ★이촌동 청소활동
- ★혜심원 어린이들 일본계 기업「글리코해태」 공장 견학
- 꿈이 있는 마을(보화보육원) 어린이들 NANTA 관람 초대
- 목포공생원 위문



일본계기업 CEO 초청 강연회 (2021년 예정)

- ★ 고려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성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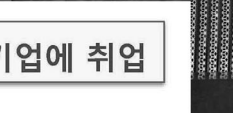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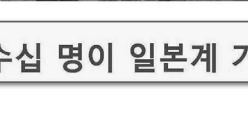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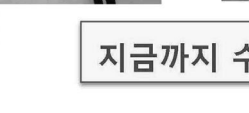


(2019년)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2)한국 사회 및 국민과의 교류

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 (인턴십 프로그램)

	2015 년도	2016 년도	2017 년도	2018 년도	2019 년도	2020 년도	2021 년도	합계
수용기업	14개사	9개사	28개사	31개사	32개사	21개사	20개사	155개사
인턴십 실습생	20명	16명	51명	50명	55명	34명	37명	26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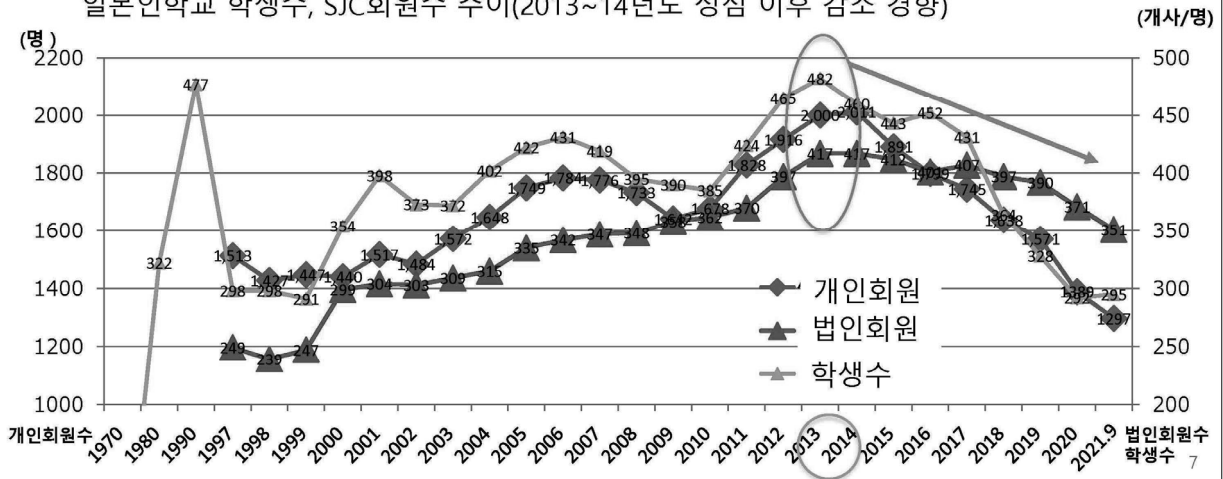
지금까지 수십 명이 일본계 기업에 취업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3)일본인학교 운영

- 해외거주 일본인 등의 자녀교육 지원 및 학력 향상을 위해 서울일본인학교 설립 및 운영
-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 총 학생수: 295명 (2021년 9월 현재)



일본인학교 학생수, SJC회원수 추이(2013~14년도 정점 이후 감소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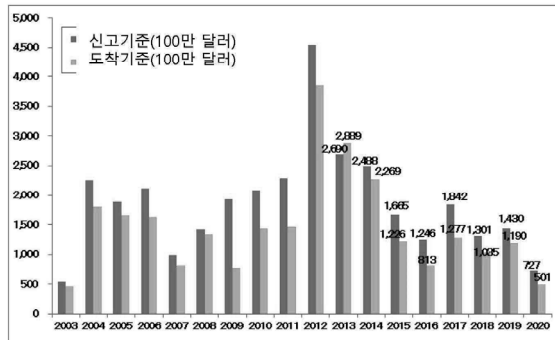
2.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

(1) 진출기업

- SJC(Seoul Japan Club) 법인회원 기업수: 351개사 (21년 9월) ※ 고용 약 5만명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일본)」: 2,749개사 (21년 7월)
- 도요경제신보사 「해외진출기업총람」: 760개사 (20년 7월)

(2) 투자실적 (출처: JETRO 한국경제정보 2021년 8월호)

○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추이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의 국가별 직접투자 수용(1962-2021년 1분기 누계)

순위	국가명	신고기준	(%)	도착기준	(%)
1	미국	91,246	30.6	37,912	20.6
2	일본	46,663	15.7	34,873	18.9
3	네덜란드	32,246	10.8	28,750	15.6
4	싱가포르	23,837	8.0	17,957	9.7
5	영국	19,482	6.5	15,743	8.5
6	몰타	19,136	6.4	15,315	8.3
7	홍콩	18,496	6.2	8,454	4.6
8	중국	17,559	5.9	6,618	3.6
9	독일	16,902	5.7	13,339	7.2
10	캐나다	11,661	3.9	5,318	2.9
합계		297,228		184,279	

(단위: 백만달러)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3. 주한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1) SJC 회원수 감소

- 지난 번 2019년 회의 발표: 법인 390개사 (개인회원 1,591명)
2021년 8월 현재: → 351개사 → 1,297명

2년 동안 법인회원 10%감소, 개인회원 20%감소

- 2015년 ~ 2021년 5월: 입회 99개사, 탈회 156개사 → 57개사 감소



- 주요 탈회 이유:

- 61% (95개사) 일본인 귀국/부재 상태
- 32% (50개사) 경비절감
- 17% (26개사) 한국에서 철수

경영환경 악화
일본인 주재원 귀임

- 탈회 법인회원의 주요 업종:

- 47개사 수송·서비스
- 26개사 전자
- 25개사 전기기계·기계
- ※ SJC 내 소속위원회

9

3. 주한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2) 2020년도 JETRO 해외진출 일본계 기업 조사

- JETRO: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ジェトロ)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경제산업성 소관

활동 내용

- 해외에 있는 일본기업의 해외비즈니스전개 지원 등 활동
- 중소기업 등 국제비즈니스전개 지원
-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위한 협력 등
- 아시아·오세아니아, 20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2020년 8~9월 실시
- 주한 일본계 기업 127개사 응답 (제조업 53개사, 비제조업 74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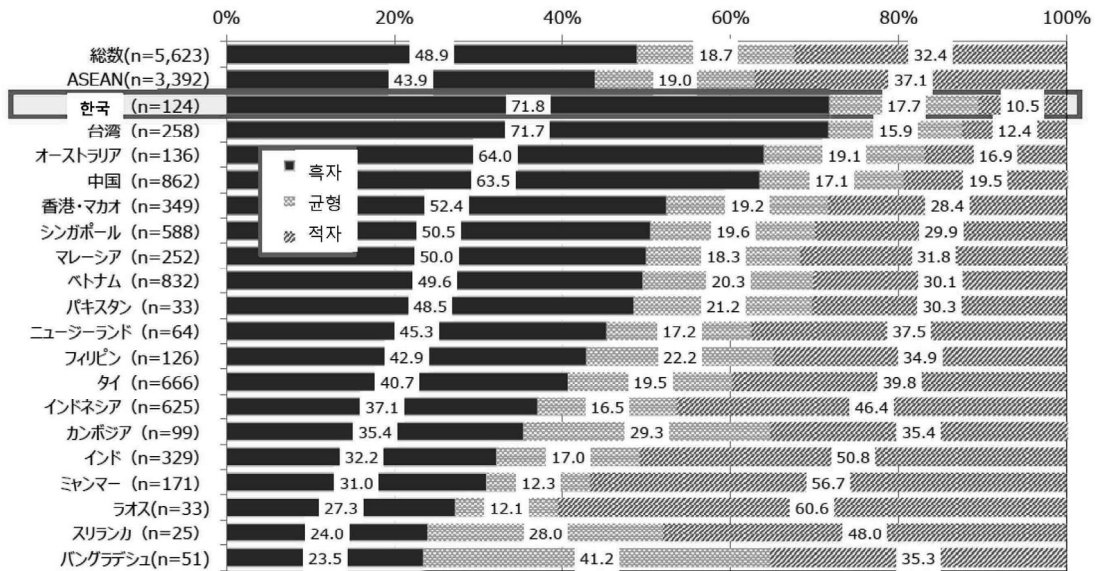


10

3. 주한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JETRO 일본계 기업 조사 ~ 2020년도 영업이익 전망

- 한국진출기업의 흑자비율은 71.8% (⇔ 2018년 조사 시에는 79.1%)
- 20개 국가 및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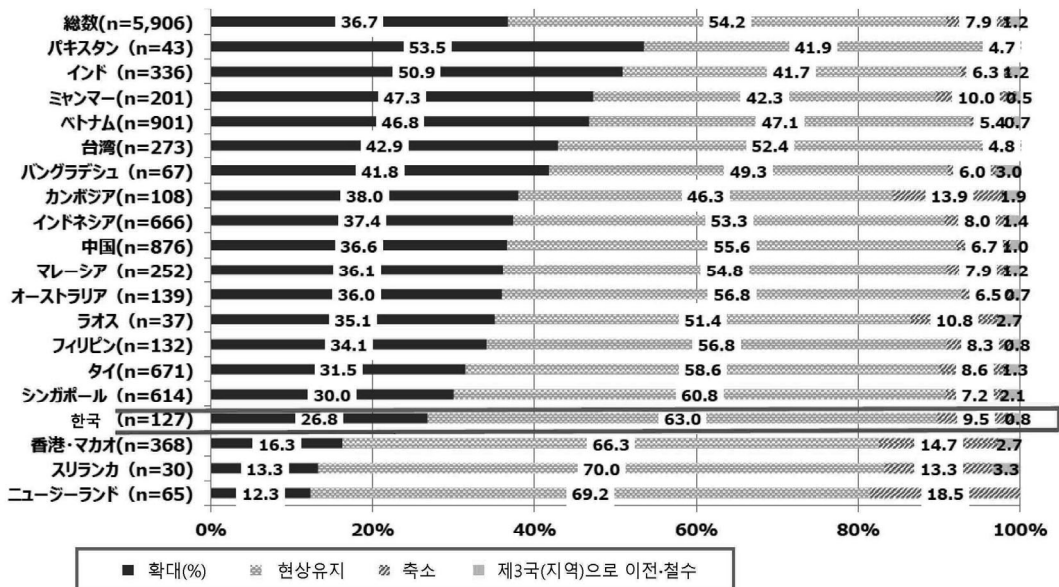


Copyright © 2021 JETRO. All rights reserved.

3. 주한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JETRO 일본계 기업조사 ~ 향후1~2년 사업전개 전망

- 한국진출기업: 「확대방침」은 26.8% (⇔ 2018년에는 42.5%. 15.7%감소)
- 16위 = 밑에서 4번째



Copyright © 2021 JETRO. All rights reserved.

3. 주한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JETRO 일본계 기업조사 ~ 문제점 Top3

- ① 종업원 임금상승
- ② 시장 침체
- ③ 수주량 감소

- 임금상승은 특히 제조업에 타격
- 임금상승은 지난 번 조사 시에도 가장 큰 고민
- 조사 당시의 상황도 영향?

※참고:EU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2018년)

- | | |
|--------------|-----|
| ① 인건비 상승 | 68% |
| ② 엄격한 경영환경 | 65% |
| ③ 직원수 감소 | 19% |
| ④ 투자·운영비용 절감 | 11% |

【일본계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順位	韓国進出企業		製造業 非製造業
	項目	合計	
1	종업원 임금상승	66.7	70.6
			63.9
2	주요 판매시장 침체 (소비 침체)	52.9	43.1
			59.7
3	거래처의 발주량 감소	48.0	51.0
			45.8
4	신규고객 개척이 지지부진	44.7	37.3
			50.0
5	경쟁상대 부상 (가격경쟁)	43.1	41.2
			44.4

임금상승은 다른 나라 기업들도 느끼는 공통 과제

13

3. 주한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JETRO 일본계 기업조사에서 ~ 요점

즉, 한국은:

- ①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의 수익 비율이 가장 크다. 가장 성공적인 국가.
- ② 단,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 ③ 수익은 나지만 향후 사업확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가.
- ④ 1년 전 조사이며 코로나로 인한 마이너스 영향 있음? 그러나 다른 국가 및 지역과 비교한 상대적 위상에는 변함없음.
- ⑤ 큰 원인은 임금상승.

지금까지는 성공했지만 사업환경이 점차 어려워지는 국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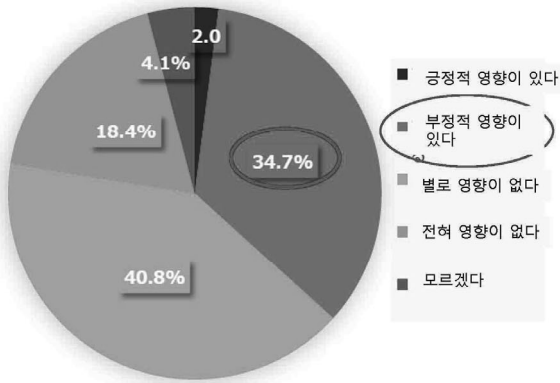
3. 주한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3) 한일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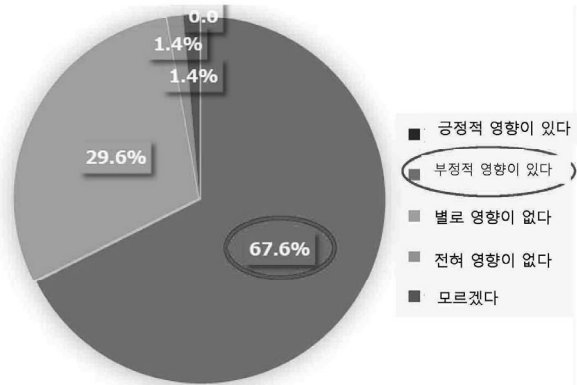
JETRO 일본계 기업조사 ~ 한일관계 악화가 미치는 영향 유무

- 제조업의 35%, 비제조업의 68%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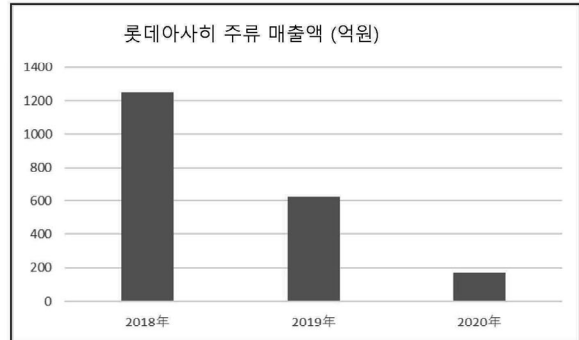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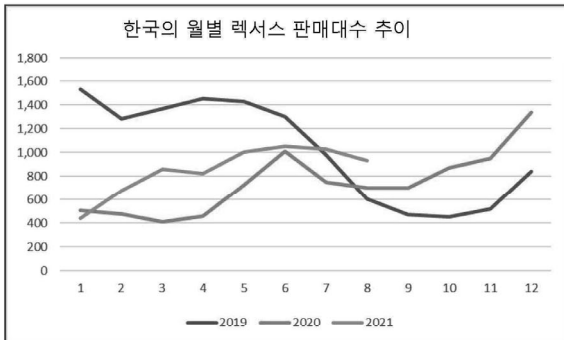
【비제조업】



3. 주한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3) 한일문제

-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잠잠해졌다... ?



-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한국소비자조사 (2020년 12월)
 - 불매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70% 이상
 -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40% 이상
- BtoB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조달처 분산화 의도, 동향

➔ 불매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한일문제 전개상황에 따라 바로 가열될 우려



4. 향후를 내다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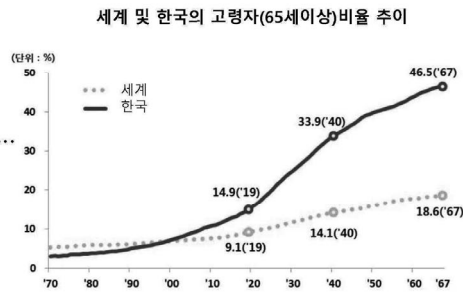
일본기업들의 노력은 지속된다

<사례>

- 원산화 요구 및 조달 포트폴리오 재검토 대응
- 해외 프로젝트 협업 ~ 한국기업역량 재평가
-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조합

~ 서로의 강점, 공통 과제

- ESG관련
- 에너지조달
- 온난화대책
- 저출산고령화대책 ...



17

5. 우리의 바람 ~ 맺음말

양국관계 개선과 정상화

- 정치와 경제는 연결
- 양국간 커뮤니케이션 ~ 서로를 리스펙트하며
- 사실과 계약을 토대로 합리적 판단을
- 상대방의 의견·제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논리적 평가를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간다
~ 이렇게 되길 바란다



18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일
모리야마 토모유키**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에 대하여

2021. 11. 02

권낙현

글로벌 환경문제

Air Pollution

Restriction on harmful
exhaust gas (HC, CO, NOx)



Global Warming

Greenhouse effect
(CO₂ restriction)



Energy

Depletion of oil resource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2050년 탄소중립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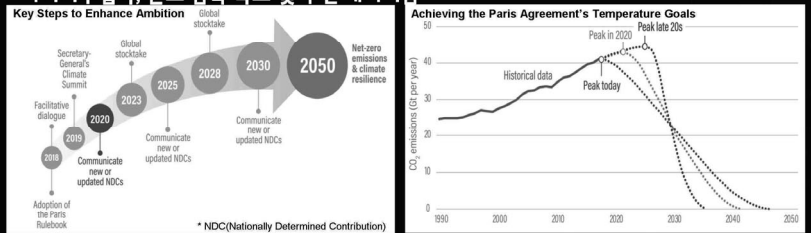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및 이행 전략

국가	선언일	주요목표	넷제로
EU	2019.01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감축 (1990년 대비)	2050
프랑스	2019.11	2022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및 203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량 40% 감축	2050
영국	2020.04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78% (1990년 대비)	2050
중국	2020.09	2030년 이전 CO ₂ 최다 배출 달성 및 2060년까지 단계적 감축	2060
한국	2020.10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4% 감축 (2017년 대비)	2050
일본	2020.10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60% 확대	2050
캐나다	2020.11	독립적인 넷제로 자문기구 설립	2050
미국	2021.01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 2배 확대 및 2035년부터 넷제로 발전 개시	2050
독일	2021.05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65% 저감 및 2040년까지 88% 감축 (1990년 대비)	2045

파리기후협약, 온도 감축 목표 및 추진 매커니즘



Source: Enhancing NDCs by 2020: Achieving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WRI report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 P4G 파트너십은 총 4가지 아젠다의 목표 실현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기후환경 조직

* 에너지전환, 폐기를 제로 녹색산업, 식품 및 농업 밸류체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May 30-31, 2021. Seoul.



P4G 서울 선언문, 9항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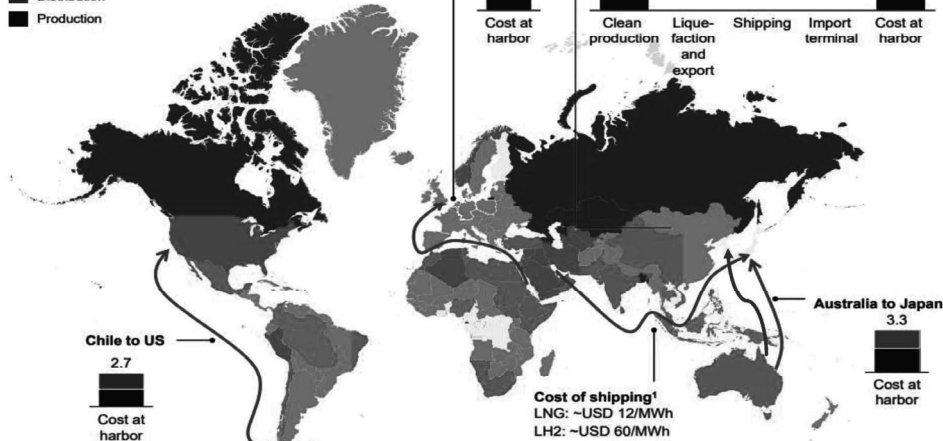
우리는 태양,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해외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 모색을 독려하고,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특히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운송이 쉬운 에너지원, 수소

Cost of shipping liquid hydrogen across regions, 2030 USD/kg

Source and expected cost level of low-carbon hydrogen in different regions

- Distribution
- Production



1. Includes liquefaction, terminals, and shipping
SOURCE: McKinsey Energy Ins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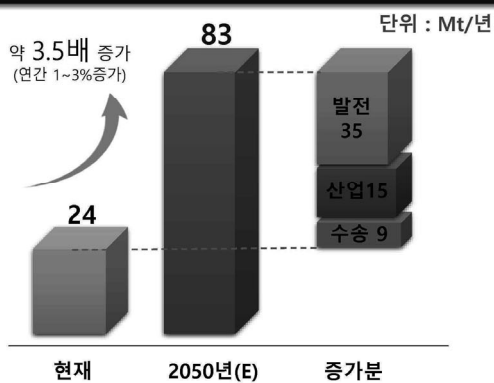
액화수소
LNG에 사용된 비슷한 기술, '30년까지 가장 저렴한 이송 방법.

Path to hydrogen competitiveness
A cost perspective
2020.01.20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전망



2050년 유럽 수소 수요



출처 : Goldman Sachs (2020)

2050년 세계 수소 시장 전망 및 효과

출처 : Goldman Sachs (2020)



2050년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
약 12조 달러 추정

세계 주요국 수소경제 전략

<p>EU / 독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 '30년까지 40GW 규모 / 독일 : '40년까지 10GW 규모 ○ 그린수소 이용 확대 및 수소 활용분야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수소 인증 기준 마련,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분야에 그린수소 활용 확대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활용한 수소 공급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차 80만대, 수소버스 1,200대, 충전소 900개소(30) ○ 해외 공급처 다변화 및 국내 수전해 기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 갈탄 개질 브라질 ⇒ 천연가스 개질 노르웨이 ⇒ 수전해 사우디 ⇒ 원유 수소 추출
<p>호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수소 단가 저감, 에너지전환 관련 수소 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시장 Top3 수소수출국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제도 확보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차량 다변화(승용, SUV, 트럭 등), 연료전지 발전 확대, 수소터빈 등 전분야 기술 확보 및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차 120만대, 물류차량 30만대, 충전소 5,800개소(30) * 수소발전 Grid Parity 달성(30)
<p>사우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활용 세계 최대 4GW급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및 수출국 위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태양광 활용 650톤/일 그린수소 생산 계획(25) 	<p>UA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확대로 저가 수전해 수소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이 5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구축(30) * "UAE 2050 에너지 전략" 발표(재생E 전력비중 50%)

한국 수소경제 이행 과정

2019 수소경제, 혁신산업의 새로운 동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Jan)

표준화 전략 로드맵 (Apr)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Jun)

신산업 규제혁신 계획 (Oct)

수소 인프라 및 수소충전소 구축방안 (Oct)

수소 안전 로드맵 (Dec)

수소 기술 로드맵 (Dec)

2020

수소경제위원회의 출범 (Feb)

수소법 제정 (Feb)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세계 최초 개정 (Feb)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Jul)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Jul)

한국판뉴딜 (Jul)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Oct)

2021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 (Mar)

수소법 시행 (Mar)

2050년 탄소중립 선언 (Dec)

2050 넷제로 선언 (Dec)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2018	2022	2030	2040
	1.8 천대 (내수 0.9 만대)	8.1 만대 (내수 6.7 만대)	내수 85 만대	620 만대 (내수 290 만대)
	14 개소	310 개소	660 개소	1,200 개소
	307 MW	1.5 GW (내수 1 GW)	내수 2.0 GW	15 GW (내수 8 GW)
	13 만톤 / 년	47 만톤 / 년	194 만톤 / 년	526 만톤 / 년
	8000원 / kg (정책가격)	6,000 원 / kg	4,000 원 / kg	3,000 원 / kg
	부생수소	부생수소 LNG 개질수소	부생수소 LNG 개질수소 수전해, 해외수입	부생수소 LNG 개질수소 수전해, 해외수입

한국 수소전기차 개발 현황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수소트럭, 수소트램 보급 확대 추진 중



고성능 연료전지시스템을 활용 수소모빌리티 전분야 적용 확대



휴대용 연료전지

가정용 연료전지 활용

산업용, 빌딩용 연료전지 활용



수소 충전 및 생산 인프라 확대



수소충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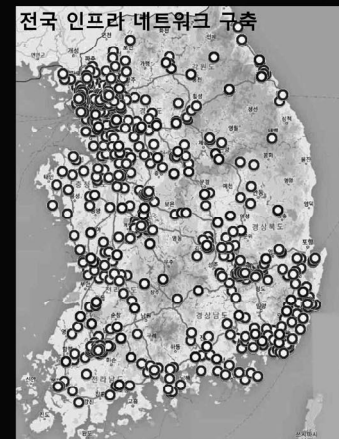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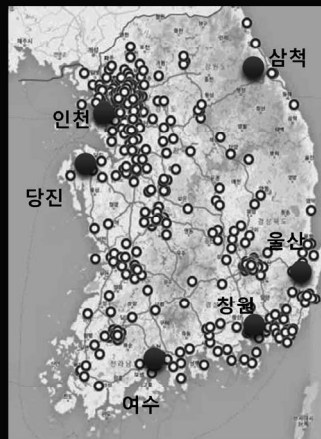
수소이송방식



경제성, 확장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2030 : 660기

2040 : 1,200 기 (버스충전소 200 포함)



● 수소생산기지(예상)

한국 수소산업 현황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 승용 15,660 대 ('21년 7월 기준)
- 버스 106 대, 택시 20 대
 ※ 수소 모빌리티 대중교통 (~2040)
 택시 80,000대, 버스 40,000대, 트럭 30,000대

- 수소차 2,000여대 수출
- 수소트럭 47대 수출('21.7, 스위스)



수소충전소 : 110기

- 세종정부청사 수소충전소 준공 ('20.8.31)
- 수소충전소 310기 구축 목표 (~'22년)

발전용 연료전지

- 연료전지: 총 674MW('21.07)
- 건물용: 7.1MW ('20년 기준)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구축 ('20.7, 대산)



경기그린에너지 (58.5MW)

지역별 수소관련 특화산업



<p>수도권 수소충전소(설치특례, 임시허가) 수소충전소 설치 애로 해결 (용도지역 제한, 견제를 규제 등)</p> <p>규제샌드박스 국회, 양재, 탄전</p>	<p>수소에너지클러스터 바이오가스 이용 수소융합 충전소 이동식 수소충전시스템 안민·아기바 그린수소 생산 수소산업 분야 기술 및 소재부품 개발지원</p> <p>수소안전클러스터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수소신용차 부품평가센터 수소용품 시험 연구원 수소안전기술원</p>	<p>수소R&D특화도시 삼척시</p> <p>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삼척시, 동해시</p> <p>분산형 소규모 생산기지 삼척시</p> <p>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포함시</p> <p>규제자유특구</p> <p>수소시범도시</p> <p>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p> <p>분산형 소규모 생산기지 창원시</p> <p>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창원시</p> <p>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p>	<p>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거지 통합 에너지 관리체계 개발 실증지 수소드론 체험관 구축</p> <p>삼척시: 그린에너지파크·스마트수소 도시 등 융복합 서비스 지원 동해시: P2G 실증센터</p> <p>생산규모: 1,000kg/일 이상 수소 생산(연연가스 개발) => 수소버스 충전소 우선 보급</p> <p>발전용 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수소연료전지 제품 국산화 실증단지·산업화 단지 조성</p> <p>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기계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대용량 수소 튜브트레일러 실증</p> <p>수소 전용 배관망 10km 구축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 도심 내 건물과 충전소 활용</p> <p>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인프라 구축·보급 확대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 구축 목표</p> <p>생산규모: 1,000kg/일 이상 영주 수소충전소 인근 도시가스 배관 활용 => 창원시 전역 수소 공급5</p> <p>수소액화 저장장치 구축: 5,000kg/일 수소액화 저장장치 국산화 개발 수소액화 플랜트 핵심기술 시스템 개발</p> <p>장비구축, 실증 핵심기술·기업 지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사업화 지원</p>
<p>수도권 매퍼지의 바이오가스 이용 대규모 수소생산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치 개발 및 연계 실증 등</p> <p>수소생산 클러스터 인천테크노파크</p>	<p>수소시범도시 안산시</p> <p>분산형 소규모 생산기지 평택시</p>	<p>수소시범도시 전주시, 완주군</p> <p>수소생산 클러스터</p>	<p>완주군: 수소생산·광역 공급 기지 전주시: 한옥마을 수소 홍보관 설치, 수소시내버스 도입 등</p>
<p>수소 생산(연연가스 개발) 조절발전소 잉여전력 => 수전해 주거분야 수소에너지원 활용</p> <p>생산규모: 5,000kg/일 수소 가격 인하 가능 예상 (8,800원/kg → 5,500원/kg)</p>	<p>경기</p> <p>강원</p> <p>충북</p> <p>경북</p> <p>전북</p> <p>울산</p> <p>경남</p>		

한국,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 발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 '21.3월)



-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과 발맞춰 민간 기업이 총 43조원 투자
- '30년까지 수소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계획은 1.2조원
- 정유·가스社도 미래 신산업 차원에서 수소경제 비전 발표

2030년 까지 투자 계획

SK	18.5조원	대규모 액화 플랜트 구축, 수소생산, 연료전지 발전 확대
HYUNDAI	11.1조원	수소모빌리티 R&D 및 설비 투자, 연관 인프라(충전소 등) 투자
POSCO	10조원	부생수소 생산, 해외그린수소 도입, 수소환원제철 개발
Hanwha	1.3조원	그린수소(수전해) R&D 실증생산, 수소 저장 설비 등
HYOSUNG	1.2조원	액화플랜트 구축, 액화 및 고압기체 충전소 보급 등
중소·중견 기업	1.2조원	가정용 연료전지, 그린수소 R&D, 수소추출기 및 저장용기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



한-일 수소 산업 분야 협력의 장점

- 글로벌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국제 협력 무엇보다 중요
-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민간 산업 협력을 위한 지리적 이점이 높음
- 양국은 수소분야 기술 수준이 높아, 기술 협력 시너지 클 것으로 예상
→ Win-Win 전략 마련이 선행
- 양국은 에너지 수입 구조 유사, 국제 수소 유통 시나리오 및 국제표준 등 공동 개발 용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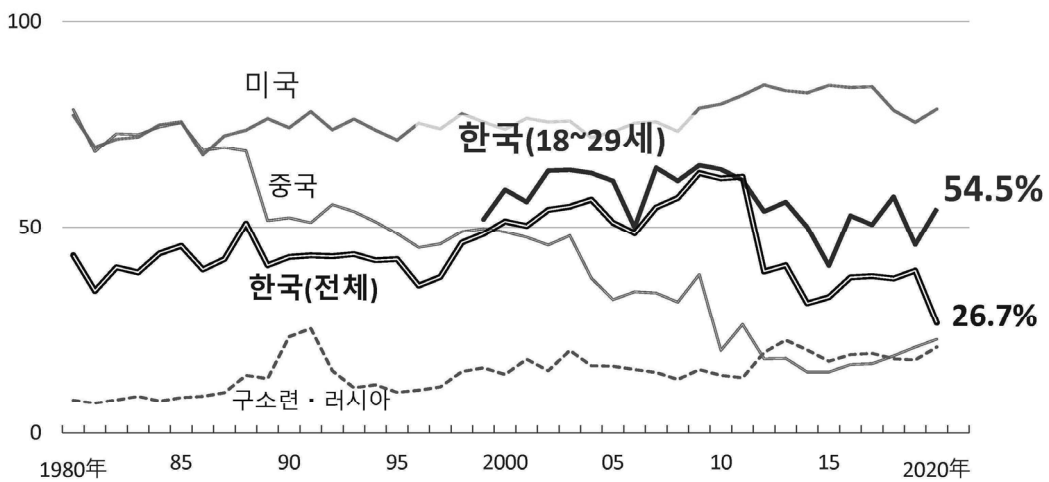


언어는 세계를 이어주는 평화의 초석
칸다외국어대학

청년들이 열어가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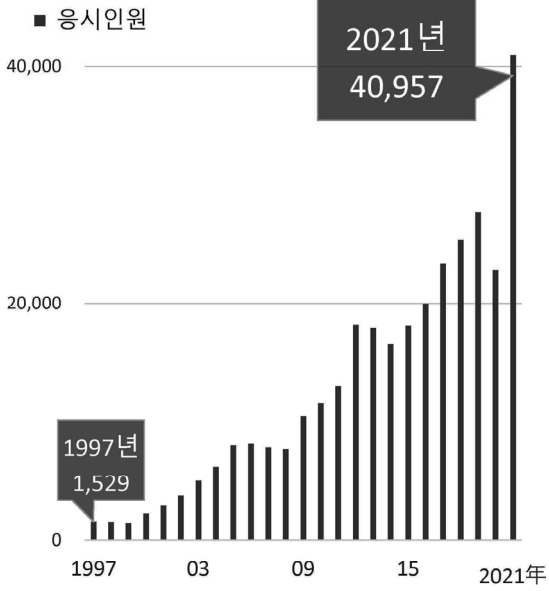
칸다외국어대학 학장
 미야우치 다카히사

각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 또는 「친근감을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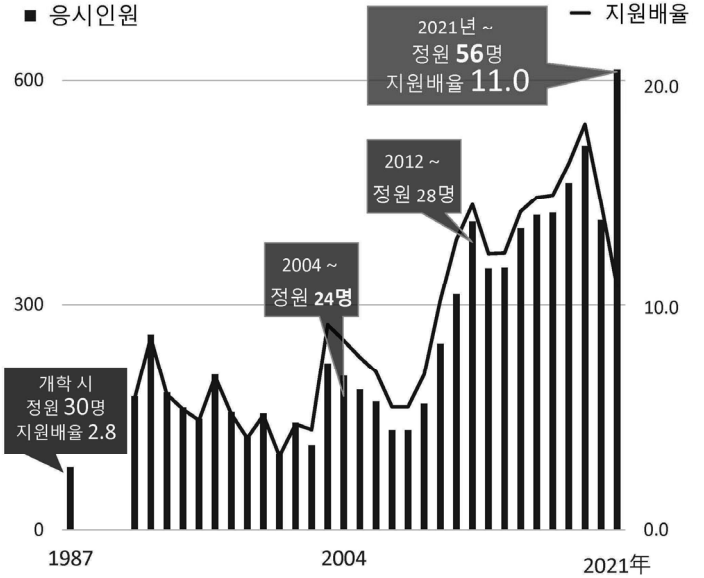
출처:일본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1980~2020년)」
<https://survey.gov-online.go.jp/r02/r02-gaiko/index.html>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응시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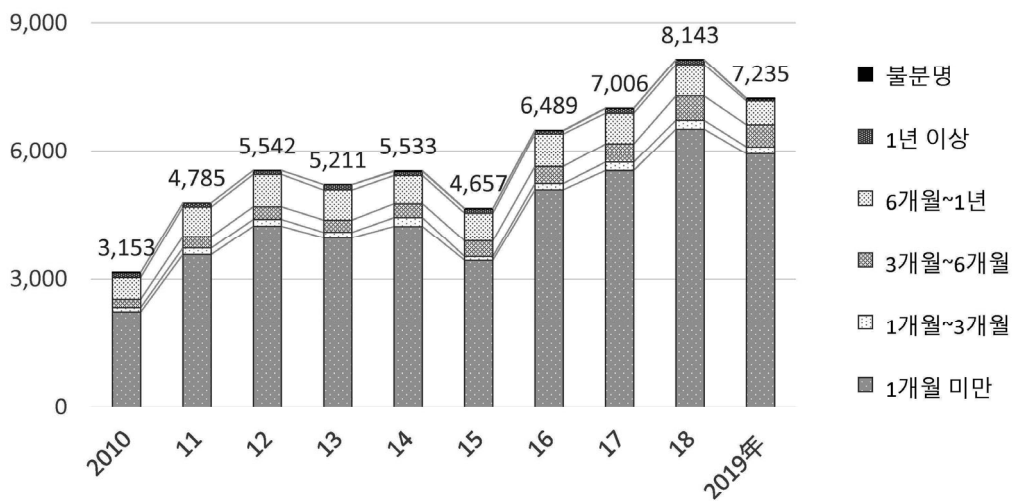
한국교육재단에서 데이터 제공

칸다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 한국어학과 (~2011년)
아시아언어학과 한국어전공 (2012년~) 지원배율 추이



<https://www.kandagaigo.ac.jp/kuis/news/100952/>

한국으로 가는 일본인 유학생 추이(유학기간별)



출처: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유학생 조사」

칸다외국어대학 학생들의 의견

한국 유학 예정자 및 경험자 22명 대상

-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 및 계기
 - 대부분은 중학생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된다
 - 엄마가 한류드라마에 빠져 함께 시청하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 고등학생 때부터 주변 학생들도 TWICE, BTS 등을 듣게 되었다
- K-POP 아이들의 매력
 - 탁월한 가창력과 댄스 파워
 -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프로패셔널함
(⇔일본 아이들의 귀여움과 대비)
- 학교 내에도 100명이 이상 가입한 K-pop댄스 동아리가 있다

한국어학습 추천

- 일본어와 문법이 유사해서 외국어지만 친숙해지기 쉽다
- 단시간에 습득을 실감할 수 있어 자기긍정감과 학습의욕이 고취된다
- 유학 경험자들의 목소리
 - 「배려심이 있고 정이 깊다」
 - 「일본인을 특별취급하지 않고 한 가족처럼 받아준다」
 - 「일본의 서민동네 같은, 인간미 있는 사회가 매력」

향후 과제

-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의 취업기회 창출
- 한자문화권 재검토

한국에게 배울 점

- 일본인은 한국에게 투쟁심을 배워야 한다
 - 중국 「속지 마라」
 - 한국 「지지 마라」
 - 일본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 외교, 비즈니스 협상, 경쟁
- 청년들은 단기간이라도 한국 유학을

일본어 자료

[第53回 韓日経済人会議]

ポストコロナ時代の 企業のデジタル革新

サムジョンKPMG イ・ドンガン Partner

2021年11月2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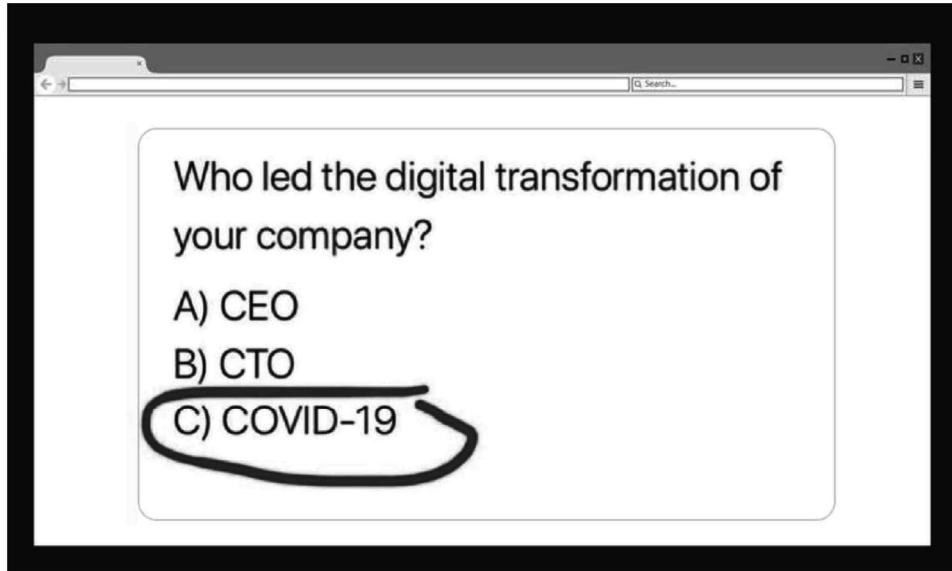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 I. **ポストコロナとデジタル革新**
- II. **ポストコロナ、企業のデジタル革新策**

Intro

最近オンライン上で流行しているクイズ



Source : Digital Transformation Quiz – SUSANNE WOLK (TWITTER)

KJE 한일경제협회

2

デジタル革新がなかなか成功しない理由

デジタル革新が失敗する事例は非常に多く、その主な理由はビジネスに影響をもたらす様々な要素に対する考慮が十分でないから

失敗したデジタル革新の事例



デジタル仮想デザイナープログラムを廃棄



Nike+ Fuelband トラッカーへの投資を中止

BURBERRY

最高のデジタル・ラグジュアリーブランドとして位置づけたが業績が低下



デジタル革新に大々的な投資を行った後、コストおよび品質問題で株価が下落



“The Most Digital Company on the Planet”の推進(2012)以降、成長が低迷

デジタル革新がなかなか成功しない理由

- 1 デジタルに関する力量以外の、ビジネスに影響を及ぼす数多くの要素を無視
- 2 デジタル革新は、ビジネスを変化させる継続的なプロセスであることを看過
- 3 産業の特性や競争環境を無視し無理なデジタル課題を推進
- 4 デジタル技術が既存の伝統的企業価値よりも優れていると錯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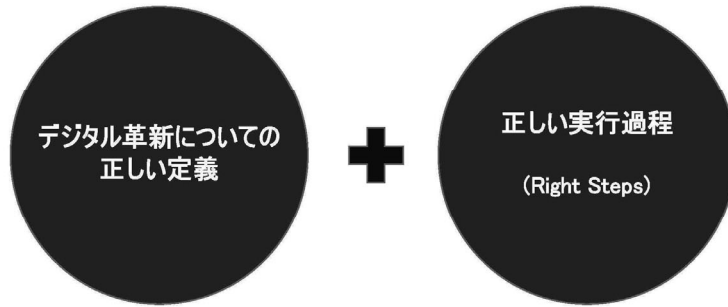
Source : Harvard Business Review (2018)

KJE 한일경제협회

3

デジタル革新を成功させるためには?

デジタル革新についての正しい定義、正しい実行過程およびデジタルリーダーシップへの変化が必要



組織を根本的に変化させる全てのもの
ビジネスモデル、組織構造、働き方、
プロセス、企業カルチャーなど

リーダーが直接的に関わるべき
デジタルリーダーへのリーダーシップの変化

コロナがビジネスに及ぼした影響

コロナの時代は、短期的なオフライン百貨店の衰退などといった個別産業への影響以上に、変化が急速かつ急激に起こることや将来的な不確実性が重要になる

The New York Times

The Death of the Department Store: 'Very Few Are Likely to Survive'

Shuttered flagships. Empty malls. Canceled orders. Risks of bankruptcy. The coronavirus has hit the behemoths of the retail world.



Source: The New York Times (2020. 4)

Our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 — the World Before Corona and the World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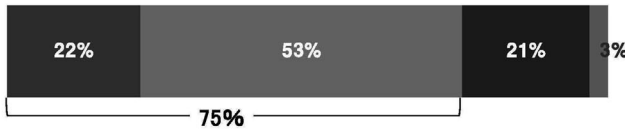
By Thomas L. Friedman
Opinion Columnist

「コロナ後にどのような変化に直面するのか
完ぺきに予見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
世界はこれまで私たちが知っていたものとは
全く異なるものになるだろう」

ポストコロナ、企業のデジタル革新が加速化

CEOの75%は「新型コロナがデジタル顧客体験の生成を加速化」、22%以上が「デジタル革新が急激に加速化し予想よりも数年前倒しになっている」と回答

デジタル消費者体験に対する加速化が進む



- 数年前倒しで急速に発展
- 数か月前倒しで急速に発展
- 以前と同様な速度で発展
- 発展速度が低下

「クラウドまたは次世代デジタルソリューションへの転換に対する顧客の心理的抵抗は、完全ではないにせよほぼなくなりました。」

Steve Hasker
President and CEO, Thomson Reuters

「デジタル技術はレジリエンス(回復弾力性)の重要な要素で、企業は未来のビジネスを保障するためデジタルへの転換に対する投資を拡大しています」

Mark A. Goodburn
Global Head of Advisory, KPMG International

Source : KPMG 2020 CEO Outlook : COVID-19 Special Edition

KJE 한일경제협회

6

①機能/産業の非対面化 (Untact)

企業が業務機能を遂行するにあたって、人との接触の最小化および既存の産業の非対面化(リモート教育、遠隔医療など)を加速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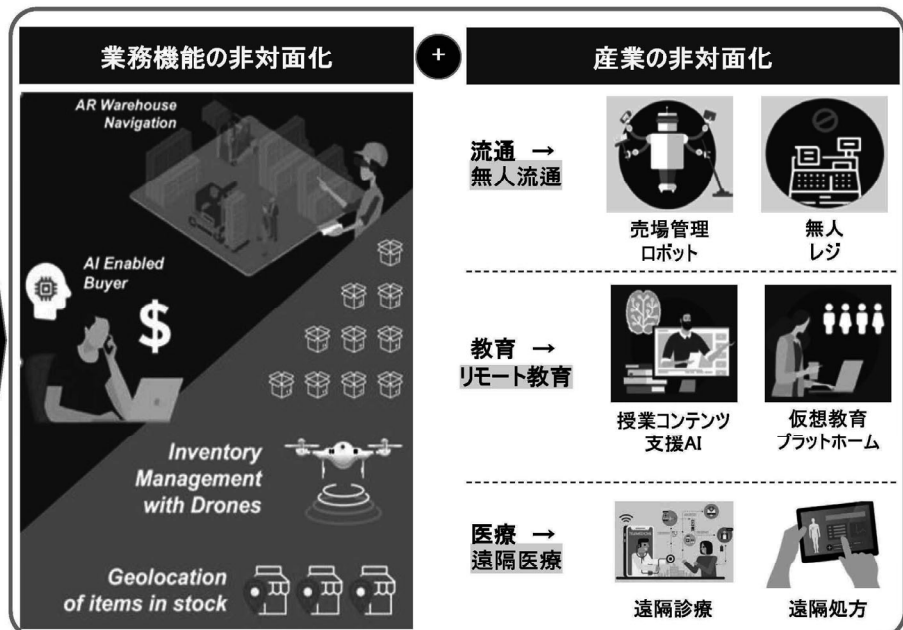
KPMG USサーベイ(2020年4月)

「コロナ禍が終息してから本格的にデジタルバンキングを使用」 **22%**

「今後3ヶ月は金融機関の支店を訪ねるつもりはない」 **37%**

「コロナ禍の終息後も支店訪問を減らすか、あえて訪問をやめるつもり」 **24%**

※ポストコロナにあってもUntactの継続が予想される



KJE 한일경제협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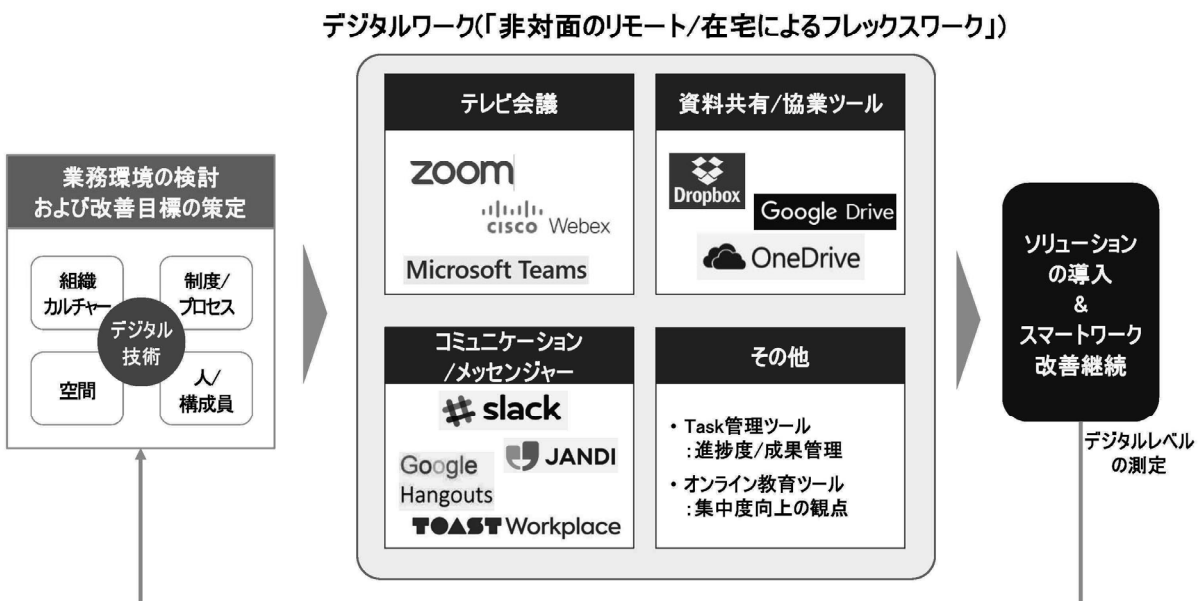
②オンラインの役割強化(オフラインの体験を補完)

コロナ禍により顧客がオンラインに流れることで発生したオフライン体験の欠如をオンラインが代替/連係
 (→ ポストコロナにあっては差別化された体験と価値を提供する新たなオフラインビジネスが活性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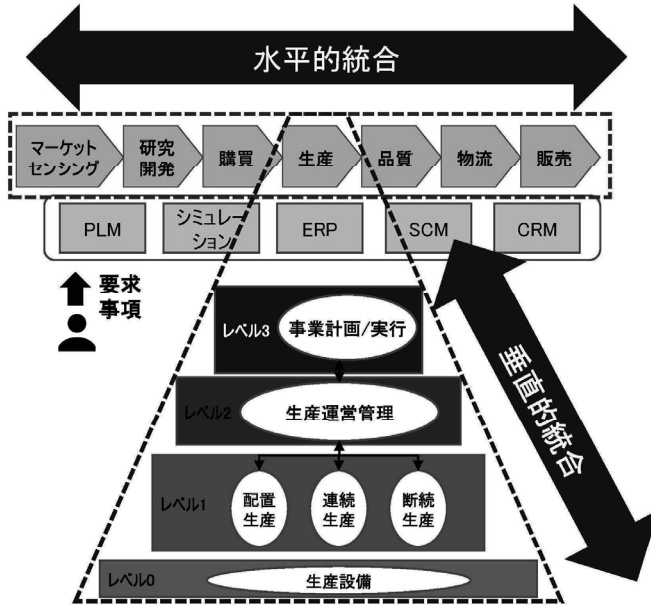
③デジタルワークの浮上

デジタル技術の活用および働き方の変化を通じてコロナ時代の業務経験の革新および生産性を向上させるデジタルワークが浮上



④スマートファクトリーの広がり(工場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

工場の生産設備自動化を通じた垂直的統合および市場/顧客センシング-購買-生産-物流-販売に至る水平的統合を通じたビジネスの最適化



水平的統合(内外のバリューチェーン統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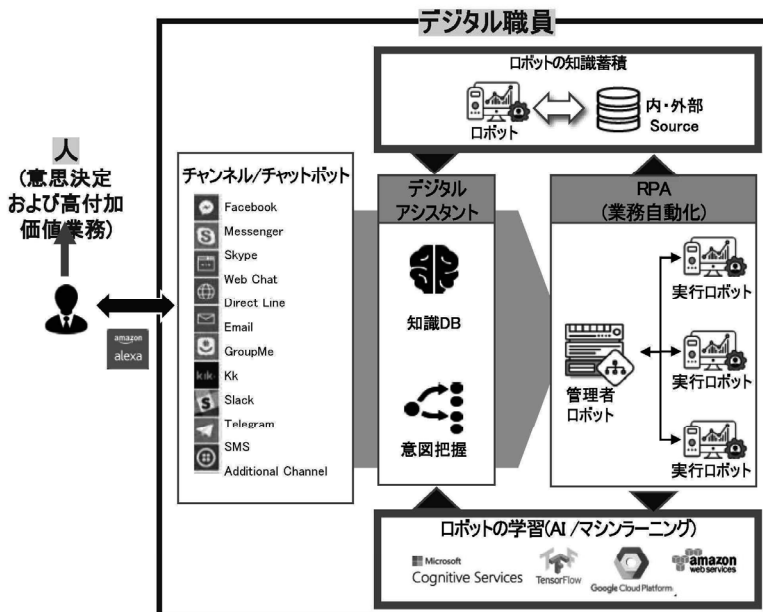
- 市場/顧客ニーズからValue Chainをベースにタイムリーかつ最も効率的に供給
- ポストコロナの急な需要変動に対してオンデマンドで対応

垂直的統合(生産システムの統合)

- 自動化、無人化により生産中断を最小化
- オンショアリング(海外進出から国内工場へのUターン)に対応

⑤デジタル職員(RPA+AI)拡大(オフィス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

デジタル職員(RPA+AI)の認知機能強化および人と協業可能な環境の加速化



RPAは週52時間無制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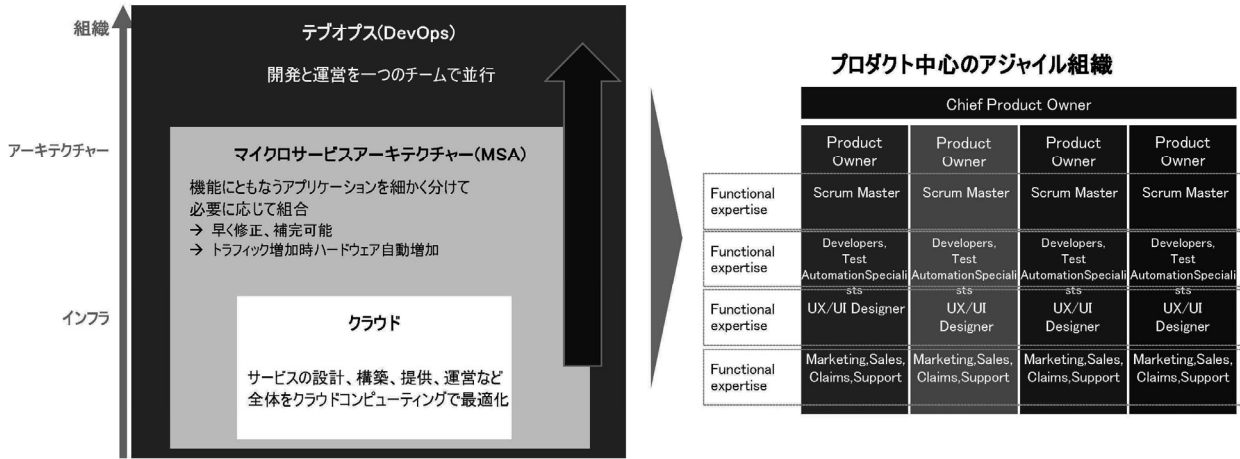
OCR(光学文字認識)、自然言語処理技術と融合し自動化領域を拡大

デジタル職員は継続して知識を蓄積&学習

人は高付加価値な業務に集中(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創意的組織カルチャー)

⑥クラウドネイティブ

ポストコロナ時代の「クラウドネイティブ」は、ITインフラから組織が仕事をする構造まで全てを再設計する過程



「データセンターの時代に行っていた 방식을クラウドに移行するだけでは、以前に経験していた問題や限界をそのまま持ち込むだけだ」

— ネットフリックス クラウド部門 副社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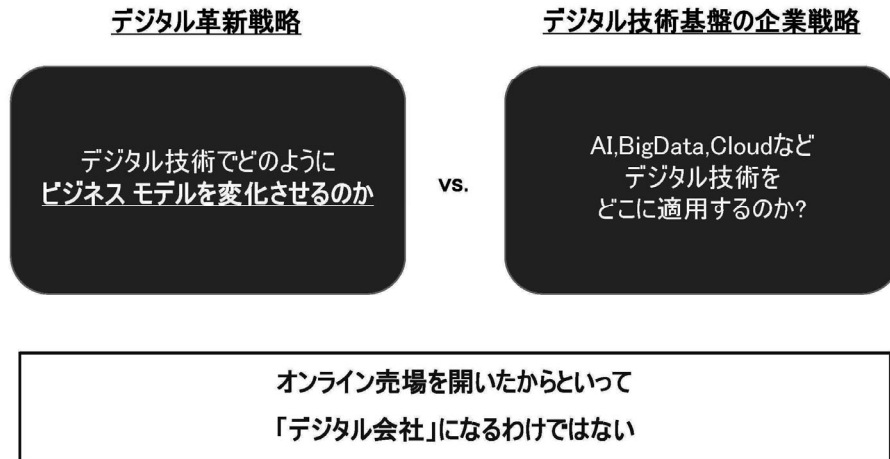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I. ポストコロナとデジタル革新

II. ポストコロナ、企業のデジタル革新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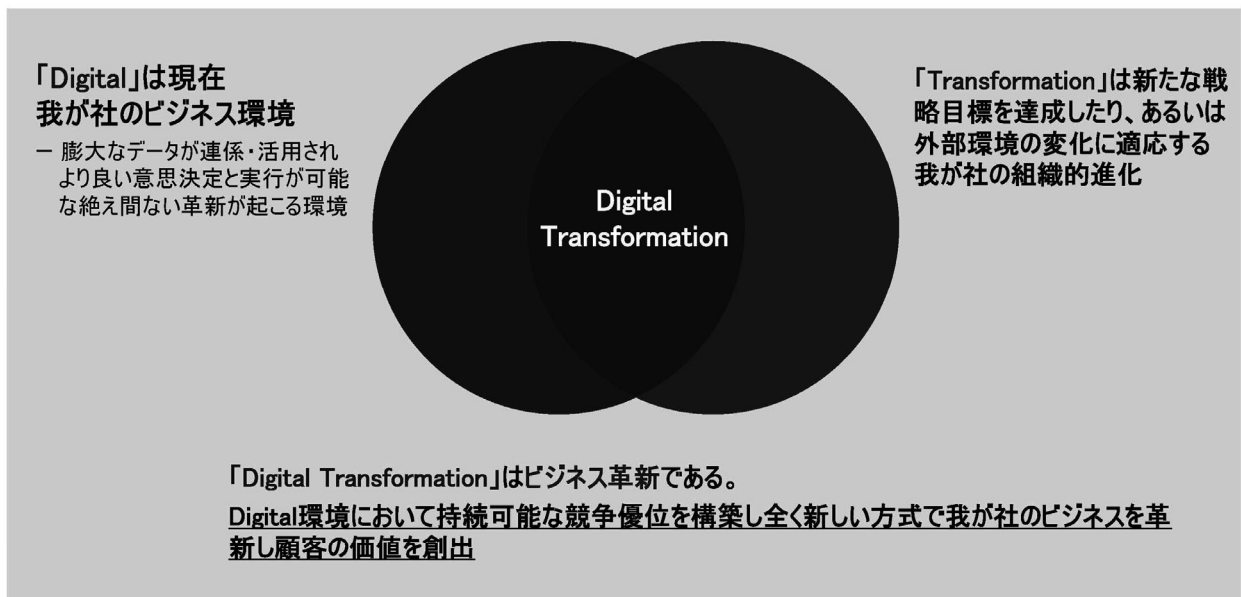
デジタル革新戦略の理解

デジタル技術により会社のビジネス/運営モデルをいかに変化させるのかを考える「デジタル革新戦略」を策定する必要あり



デジタル革新の定義

デジタル革新(Digital Transformation)は、デジタルをベースとするビジネス革新(Digital-driven business Trans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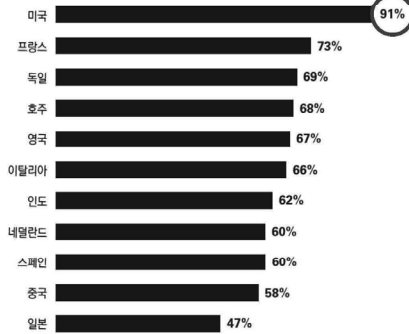


Q1. 経営陣主導のデジタル革新目標が設定され実行されているか？

ポストコロナの時代、デジタル革新はBottom-up方式では成功が困難
:コロナ禍の衝撃を最小化し危機をチャンスに変えるための迅速なTop-Downによる意志決定体系が肝

事業運営モデルの変化に対するCEOの準備

CEOの71%は急激な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を通じて
自社の事業運営モデルを変化させる準備ができていると回答



特にアメリカのCEOのうち91%はFirst Moverになるため努力

Source : 2018 Global CEO Outlook, KPMG International



JOHN DEERE

「農業機械でなく
データを売ります。」

サミュエル・アレン(Samuel Allen)ジョンディア(John Deere) CEO

- 1837年に設立された農機械メーカー
- 「デジタル ソリューション企業」のビジョンを設定し実行
 - 「農夫が農業機械を毎年買うことはないが、データは毎年必要だ。彼らに情報と助言を販売することで、事業をより継続的なものにするだろう」
- 売り上げ約45兆ウォン(2017)
 - 1,000人以上のデータサイエンティストを擁している

Q2. 消費者の変化を捕らえているのか？

消費者のライフスタイルやニーズの変化を捕らえ、顧客中心の戦略を実行する企業が競争優位を確保するだろ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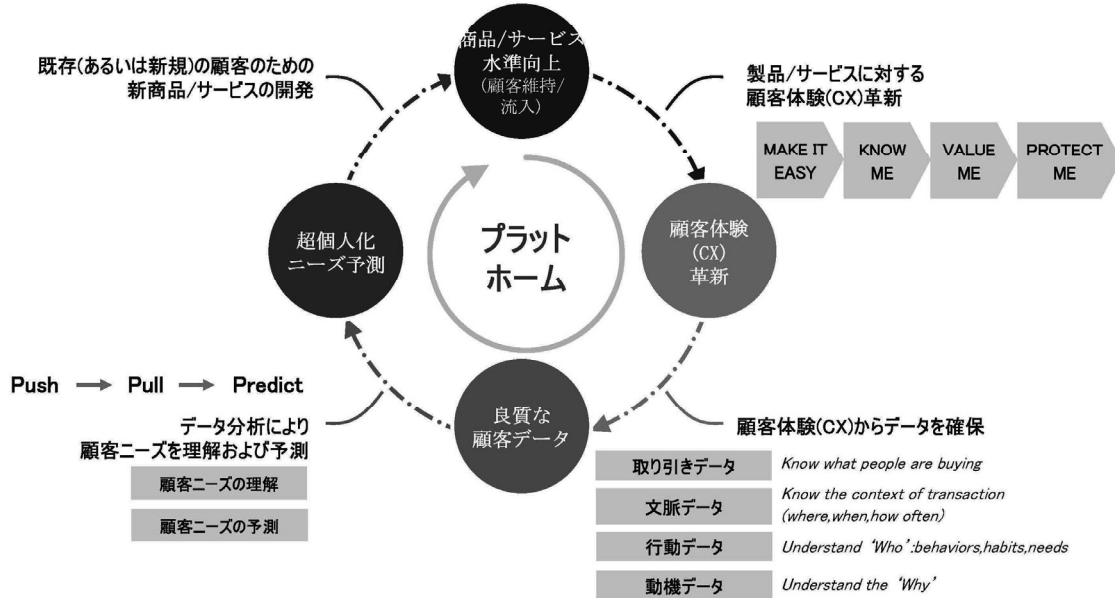
【消費者の5つのMy (The Five Mys)】



Source : KPMG(2021), "Me, My Life, My Wallet"

Q3. プラットホームをベースとして顧客体験を差別化しているか？

プラットフォームを基盤とし「顧客体験の革新→良質なデータ→超個人化→商品/サービスの水準向上」という好循環のサイクルを構築し、既存の顧客のLock-inおよび新規顧客の流入を拡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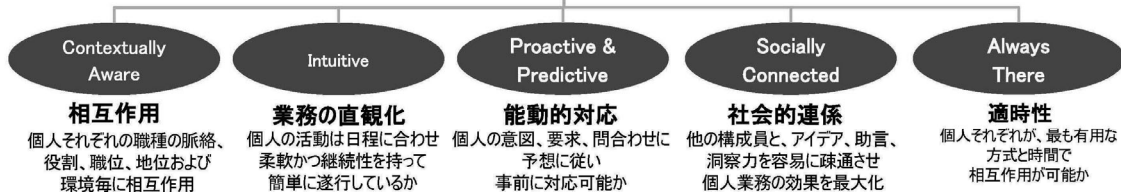


Q4. デジタル企業カルチャーを有しているか？ (EX + CX)

Customer(+Employee)体験の向上を通じた生産性向上、人材誘致/維持、持続的成長を牽引: デジタルベースの、ヒト中心の働き方(Way of Working)の革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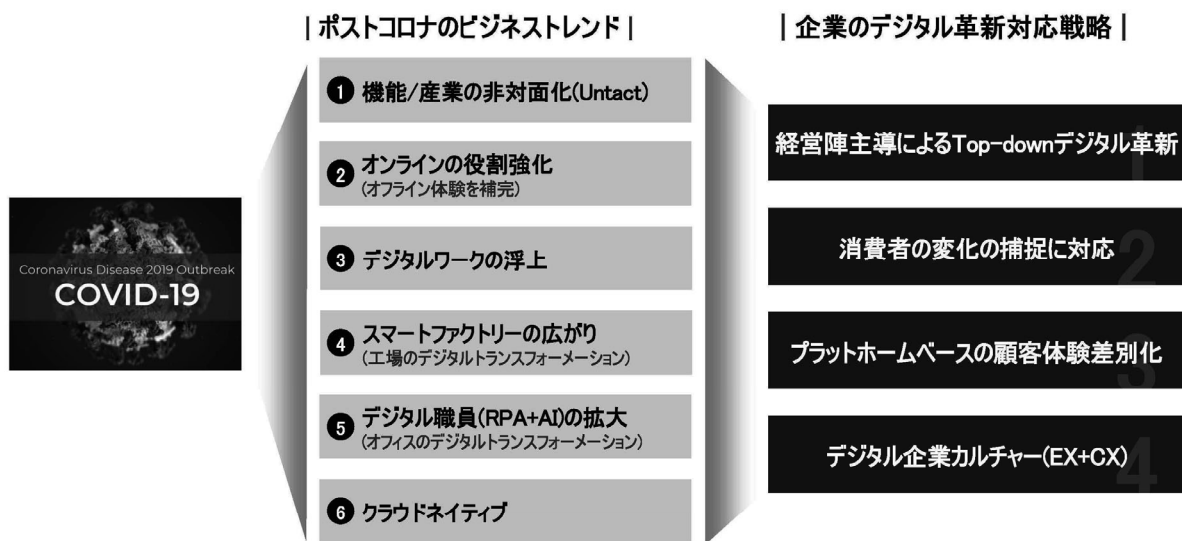


EX革新の核となる原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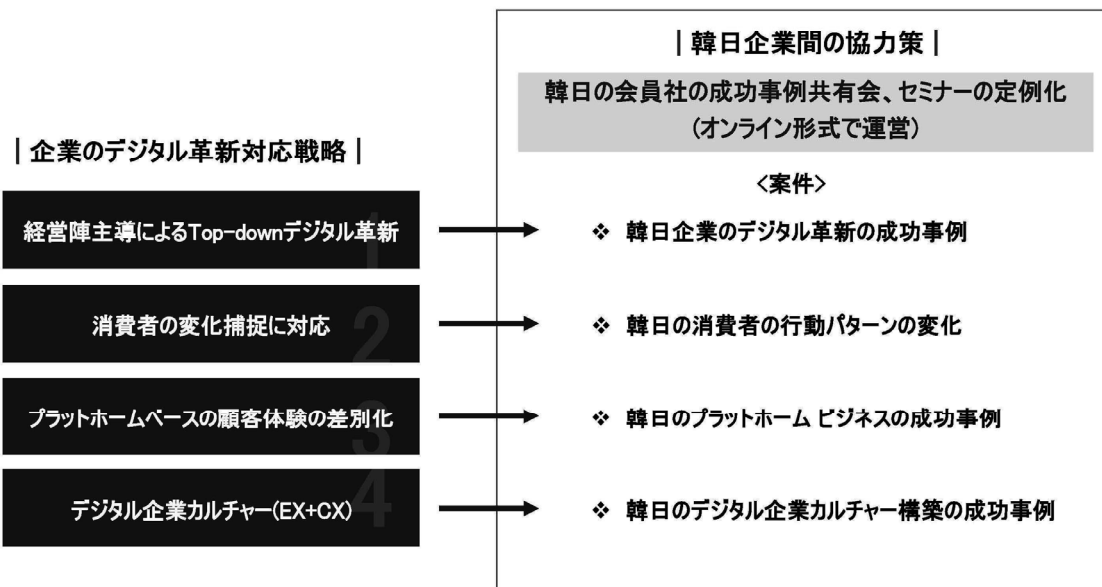
Summary

ポストコロナの環境変化に適合するデジタル戦略を策定し、経営陣の主導により顧客のニーズに迅速に対応できるデータを基盤とするプラットフォームを確保しデジタル企業カルチャーを定着させる



提言: デジタル時代の韓日企業間の協力策

先に提案した企業のデジタル革新対応戦略毎に韓日の会員社の成功事例をオンライン説明会やセミナーといったかたちで共有し企業間の相互交流を増進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韓国に於ける日本企業の活動状況 ～ 現場からの報告 ～

2021年11月

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理事長
韓国三井物産(株)代表理事社長
森山 朋之

1

本日の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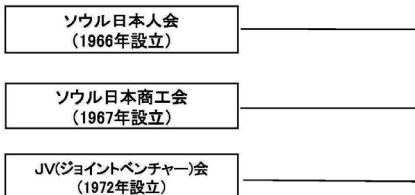
1. 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SJC)について
 - (1)概要
 - (2)韓国社会・国民との交流
 - (3)日本人学校運営
2. 韓国に於ける日本企業の活動
 - (1)進出企業数
 - (2)投資実績
3. 在韓日本企業にとっての問題点
 - (1)SJC会員数変遷
 - (2)JETRO調査から見る日本企業の状況
 - (3)日韓問題
4. これからを見据えて
5. 我々の願い

2

1. 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SJC)について (1)概要

1997年に3つの日系機関が統合し発足。韓国内最大級の日系コミュニテ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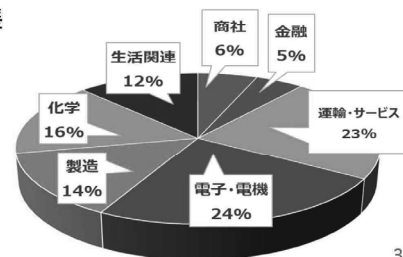
1965年 日韓国交正常化



- **会員数:** 法人351社、個人1,297名 ※2021年9月8日現在
- **年間予算規模:** 約10億KRW ※日本人学校関連資産を除く
- **商工会活動:** 建議事項の提出、法人向けセミナー・勉強会、視察・研修の企画・実施
- **活動目的:**
 - ◎ 会員相互の親睦ならびに啓発、福祉の向上
 - ◎ 日韓両国の親善、韓国社会への貢献
 - ◎ 日韓両国の経済関係の円滑な発展の支援

会員企業351社の業種別構成

商社	21 社
金融	17 社
運輸・サービス	80 社
電子・電機	85 社
製造	49 社
化学	56 社
生活関連	43 社



3

1. 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SJC)について (2)韓国社会・国民との交流

文化交流 (2019年、2020年実績) (★写真)

●SJC主催事業

★第17回日韓カラオケ大会(2019年)



●後援・協賛事業

- 2019年度日韓若手音楽家交流コンサートfrom Switzerland (国際交流基金)
- 2019年度(第21回)、2020年度(第22回)全国中・高等学生日本語学力競試大会 (韓日協会)
- 第5回韓日青少年交流会「ひとつの心、ひとつの声」 (韓日協会)(2019年)
- 2019年度(第7回)、2020年度(第8回) 全国大学生日本語翻訳大会 (韓日協会)
- 日韓交流おまつり2019、2020 in Seoul (日韓交流おまつり運営委員会)
- 第6回、第7回日韓フォトコンテスト (日本大使館)
- 2019、2020日韓共同セミナー (自治体国際化協会ソウル事務所)
- ★ 第15回、第16回日韓交流スピーチ大会 (JETAA大韓民国支部)
- 2019年度(第8回)韓国大学生日本語ディベート大会 (韓国大学生ディベート大会運営委員会)
- 第4回、第5回日本留学&就職フェア (韓日協会)
- 2019年度李秀賢氏写真展及び映画上映会 (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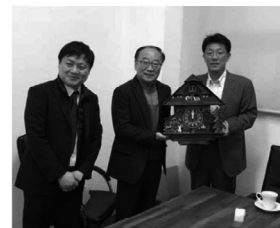
4

1. 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SJC)について (2)韓国社会・国民との交流

社会貢献(★写真)

寄付先(9カ所)(2019年・2020年実績)

- 老人養護施設 慶州ナザレ園
- 児童福祉施設 夢がある村(普和保育園)、★東明児童福祉センター、江南区健康家庭支援センター、ヘシム園、木浦共生園
- その他 ゴムドゥリサッカー協会(障がい者) バリアフリー映画協会
- コロナ関連 全国災害救護協会(2020年のみ)



社会貢献活動(4件)(2019年実績、2020年はコロナによりやむを得ず中止)

- ★二村洞清掃活動
- ★ヘシム園児童の日系企業「グリコヘテ社」工場見学
- 夢がある村(普和保育園)児童をNANTA観戦に招待
- 木浦共生園慰問



日系企業CEOによる講演会(2021年予定)

- ★ 高麗大学
- カトリック大学
- 韓国外国語大学
- 聖潔大学



(2019年)

1. 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SJC)について (2)韓国社会・国民との交流

企業現場人材育成事業(インターン実習プログラム)

	2015年度	2016年度	2017年度	2018年度	2019年度	2020年度	2021年度	合計
受入企業	14社	9社	28社	31社	32社	21社	20社	155社
インターン実習生	20名	16名	51名	50名	55名	34名	37名	263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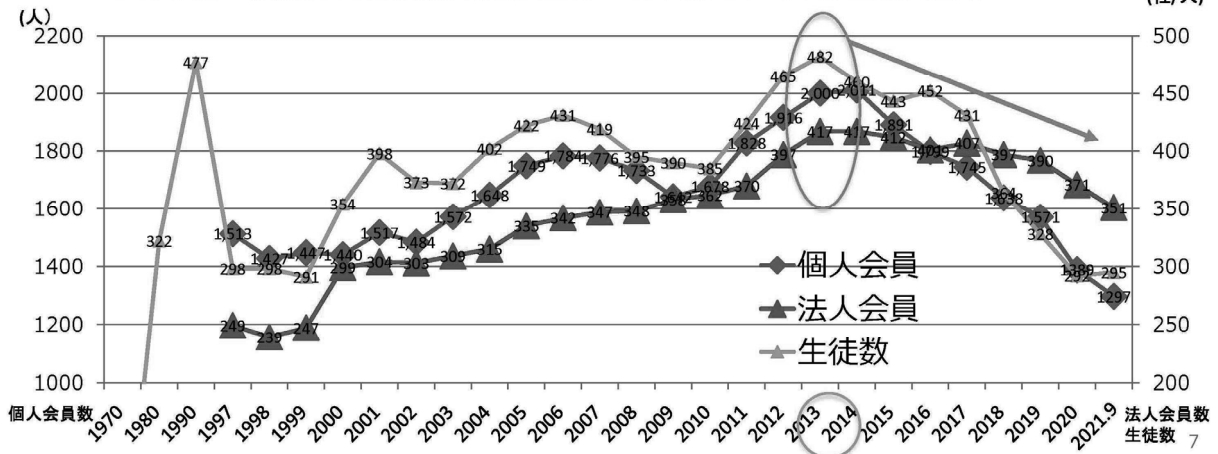
これまでに数十名が日系企業に就職

1. ソウルジャパンクラブ(SJC)について (3)日本人学校運営

- 在留邦人等の子女教育支援・学力向上のため、ソウル日本人学校を設立・運営
- 幼稚園、小学校・中学校
- 所在地： ソウル特別市麻浦区上岩洞
- 総生徒数： 295名(2021年9月現在)



日本人学校生徒数、SJC会員数の推移(2013～14年度をピークとして減少傾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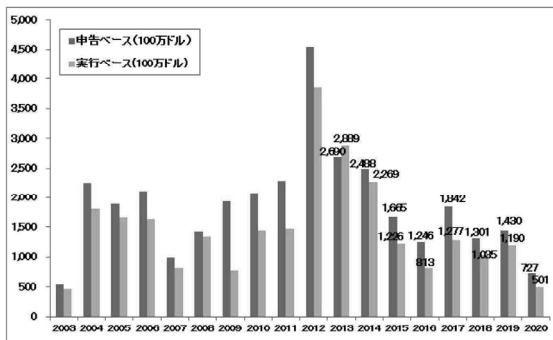
2. 韓国に於ける日本企業の活動

(1)進出企業数

- SJC(Seoul Japan Club)法人会員企業数： 351社(21年9月) ※ 雇用約5万人
- 産業通商資源部「外国人投資企業情報(日本)」： 2,749社(21年7月)
- 東洋経済新報社「海外進出企業総覧」： 760社(20年7月)

(2)投資実績 (出典：JETRO韓国経済情報2021年8月号)

○ 日本の対韓直接投資推移



出典：産業通商資源部

○ 韓国の国別直接投資受入れ(1962～2021年第1四半期累計)

申告順位	国名	申告ベース	(%)	実行ベース	(%)
1	米国	91,246	30.6	37,912	20.6
2	日本	46,663	15.7	34,873	18.9
3	オランダ	32,246	10.8	28,750	15.6
4	シンガポール	23,837	8.0	17,957	9.7
5	英国	19,482	6.5	15,743	8.5
6	マルタ	19,136	6.4	15,315	8.3
7	香港	18,496	6.2	8,454	4.6
8	中国	17,559	5.9	6,618	3.6
9	ドイツ	16,902	5.7	13,339	7.2
10	カナダ	11,661	3.9	5,318	2.9
合計		297,228		184,279	

(単位：百万ドル)

出典：産業通商資源部

3. 在韓日本企業にとっての問題点

(1) SJC会員数の減少

- ・ 前回 2019年会議での発表: 法人 390社 (個人会員1,591名)
- 2021年8月現在: → 351社 → 1,297名

2年間で法人会員10%減、個人会員20%減

- ・ 2015年～2021年5月: 入会 99社、退会 156社 → 57社減



- 主たる退会理由:

- 61% (95社) 日本人が帰国/不在となった
- 32% (50社) 経費節減
- 17% (26社) 韓国からの撤退

経営環境悪化
日本人駐在員の帰任

- 退会した法人会員の主な業種:

- 47社 運輸・サービス
- 26社 電子
- 25社 電機・機械
- ※ SJCの中での所属委員会

9

3. 在韓日本企業にとっての問題点

(2) 2020年度JETRO海外進出日系企業調査から

- ・ JETRO: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経済産業省所管

活動内容

- 在外日本企業の海外ビジネス展開支援等活動
- 中小企業等の国際ビジネス展開の支援
- 経済連携協定(EPA)への協力、等

- ・ アジア・オセアニア、20カ国・地域進出の日系企業へのアンケート調査
- ・ 2020年8～9月実施
- ・ 在韩国日系企業 127社が回答 (製造業 53社、非製造業 74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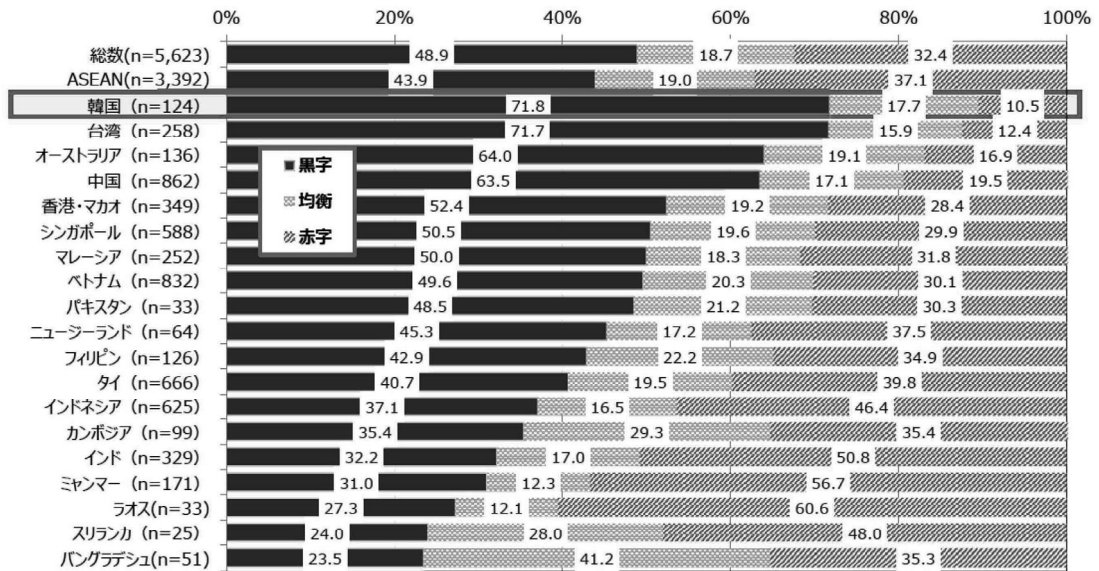


10

3. 在韓日本企業にとっての問題点

JETRO日系企業調査 ～ 2020年度営業利益見込み

- ・ 韓国進出企業の黒字割合は71.8% (⇔ 2018年調査時は79.1%)
- ・ 20カ国・地域の中で最も高い割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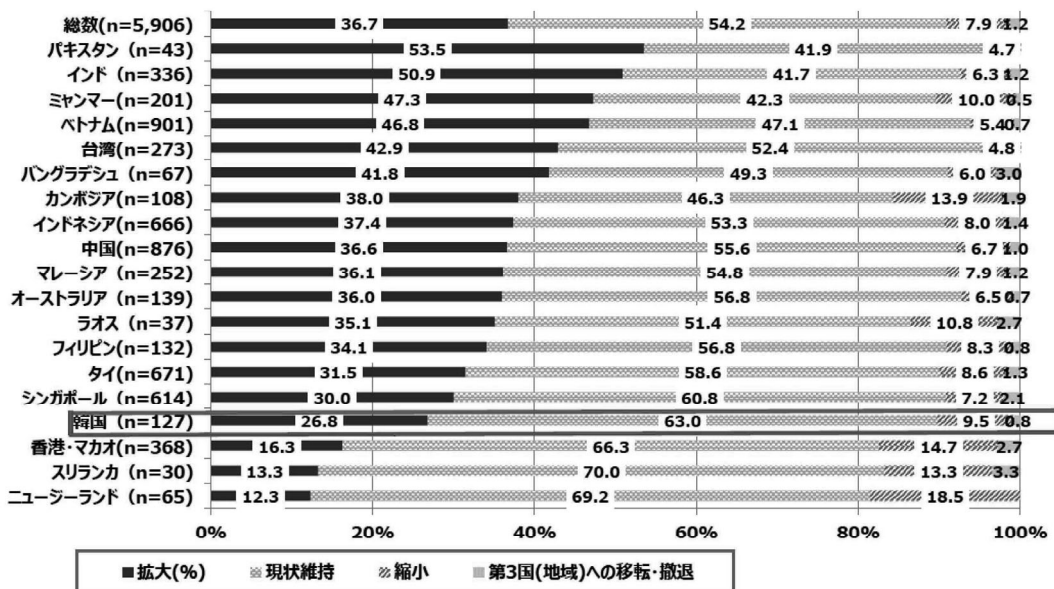


Copyright © 2021 JETRO. All rights reserved.

3. 在韓日本企業にとっての問題点

JETRO日系企業調査 ～ 今後1～2年の事業展開見通し

- ・ 韓国進出企業: 「拡大方針」は26.8% (⇔ 2018年は42.5%。15.7%減)
- ・ 16位 = 下から4番目



Copyright © 2021 JETRO. All rights reserved.

3. 在韓日本企業にとっての問題点

JETRO日系企業調査～問題点 Top 3

- ① 従業員の賃金上昇
- ② 市場の低迷
- ③ 受注量の減少

- ・賃金上昇は特に製造業にとって痛手
- ・賃金上昇は前回調査でも一番の悩み
- ・調査時の事情も影響？

※参考: EU企業が抱える問題点 (2018年)

① 人件費上昇	68%
② 厳しい経営環境	65%
③ 職員数の減少	19%
④ 投資・運営費用削減	11%

【日系企業が抱える問題点】

順位	韓国進出企業		
	項目	合計	製造業
			非製造業
1	従業員の賃金上昇	66.7	70.6
			63.9
2	主要販売市場の低迷(消費低迷)	52.9	43.1
			59.7
3	取引先からの発注量の減少	48.0	51.0
			45.8
4	新規顧客の開拓が進まない	44.7	37.3
			50.0
5	競合相手の台頭(コスト面で競合)	43.1	41.2
			44.4

賃金上昇は他国企業にも共通した悩み

13

3. 在韓日本企業にとっての問題点

JETRO日系企業調査から～要点

即ち韓国は:

- ① 進出している日系企業が利益を出している割合が最も高い。最も成功している国。
- ② 但し利益を出している企業の割合は減少してきている。
- ③ 利益を出してはいるが、将来の事業拡大は難しいと考えている国。
- ④ 1年前の調査であり、コロナによる負の影響有り? けれども他の国・地域と比べた相対的な立ち位置は変わらず。
- ⑤ 大きな原因は賃金上昇。

今までは成功してきたが、事業環境としては次第に難しくなってきている国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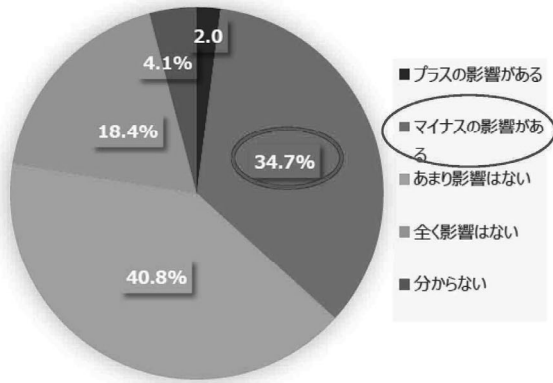
3. 在韓日本企業にとっての問題点

(3) 日韓問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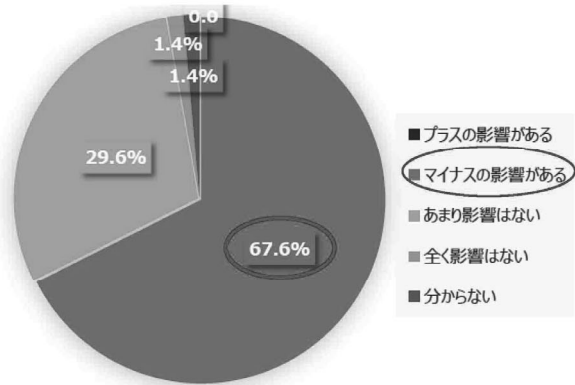
JETRO日系企業調査 ～ 日韓関係悪化による影響の有無

・ 製造業の35%、非製造業の68%が「マイナスの影響が有る」と回答

【製造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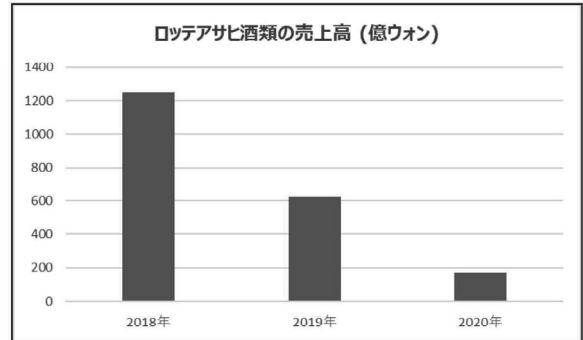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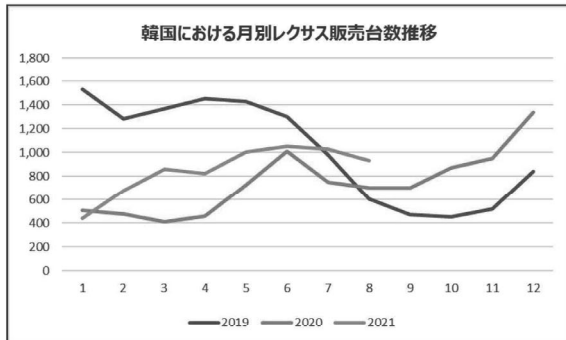
【非製造業】



3. 在韓日本企業にとっての問題点

(3) 日韓問題

● 日本品不買運動は沈静化した…？



● 日本品不買運動に関する韓国消費者調査 (2020年12月)

- 参加した経験がある … 70%強
- 今後も積極的に参加する … 40%強

● BtoBビジネスの現場では … 調達先分散の意図、動き

→ 不買運動は無くなっていない
日韓問題の展開次第では直ぐに再燃する虞



4. これからを見据え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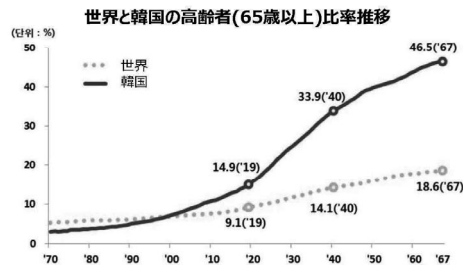
日本企業の努力は続く

< 例 >

- 原産化要求や調達ポートフォリオ見直しへの対応
- 海外プロジェクトでの協業 ~ 韓国企業の実力再評価
- 日本企業と韓国企業の組み合わせ

~ お互いの強み、共通の課題

- ESG関連
- エネルギー調達
- 温暖化対策
- 少子高齢化対策 ...



17

5. 我々の願い ~ 最後に

両国関係の改善と正常化

- 政治と経済は連結
- 両国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 ~ お互いをリスペクトして
- 事実と契約に基づく合理的な判断を
- 相手の意見・提案に対しては公正で論理的な評価を



食べたいものを食べ、買いたいものを買、行きたいところに行く
~ そうあって欲しい



18

ご清聴有難うございました。

2021年11月2日
森山朋之

水素社会と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ついて

2021.11.02

クオン・ナクヒョン

世界的な環境問題

Air Pollution

Restriction on harmful
exhaust gas (HC, CO, NOx)



Global Warming

Greenhouse effect
(CO₂ restriction)



Energy

Depletion of oil resource



主要各国の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宣言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2050년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宣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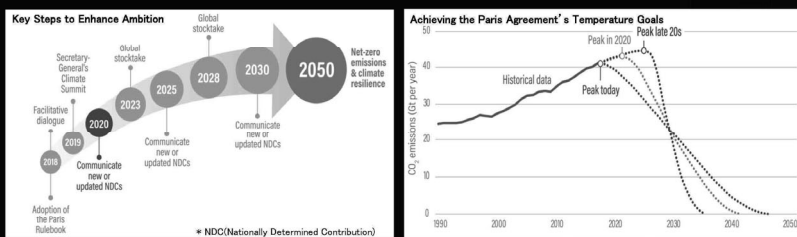
新成長エンジンと新たな雇
用創出のチャンスとする必
要があります



主要各国の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宣言および実行戦略

国家	宣言日	主な目標	四題で
EU	2019.01	2030年までに炭素排出量を55%に削減(1990年比)	2050
フランス	2019.11	2022年までに石炭発電廃止、2030年までに化石燃料消費量を40%削減	2050
英国	2020.04	2030年までに炭素排出量を78%に(1990年比)	2050
中国	2020.09	2030年までにCO ₂ 排出量ピークアウト、2060年まで段階的に削減	2060
韓国	2020.10	2030年までに温室効果ガス排出量を24%削減(2017年比)	2050
日本	2020.10	2030年までに太陽光発電を60%拡大	2050
カナダ	2020.11	独立的なネットゼロ諮問機構を設立	2050
米国	2021.01	2030年までに再生可能エネルギー生産量を2倍に、2035年からネットゼロ発電を開始	2050
ドイツ	2021.05	2030年までに炭素排出量を65%削減、2040年までに88%削減(1990年比)	2045

パリ協定、温度目標および推進メカニズム



Source: Enhancing NDCs by 2020: Achieving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WFP report

2021 P4Gソウルサミット

- P4Gパートナーシップは4つのアジェンダの実現に向けて結成されたグローバルな気候環境組織
* エネルギー転換、廃棄物ゼロのグリーン産業、食品および農業のバリューチェーン、水資源確保のためのデジタルソリューション

May 30-31, 2021, Seoul.



P4Gソウル宣言、第9項 2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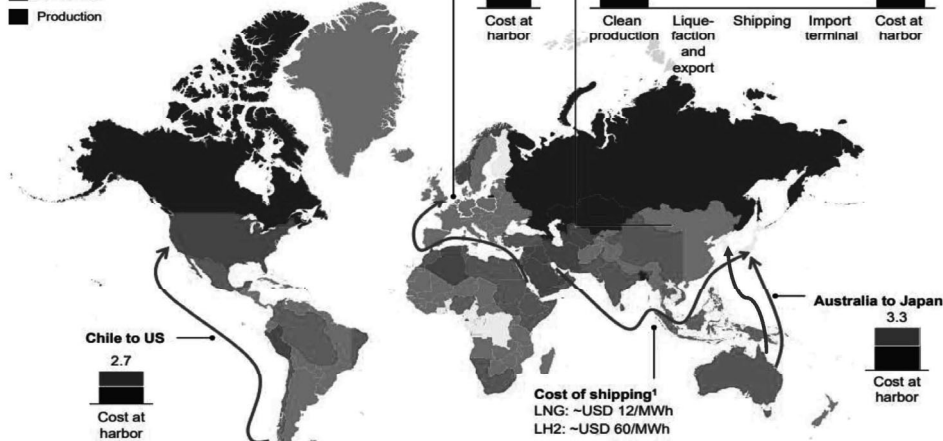
我々は、太陽・風力エネルギーなど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の拡大を通じてエネルギー転換を促進するための国際協力を強化し、脱石炭と海外の石炭発電所建設に対する公的金融中断に向けた方法を模索するよう促し、エネルギーの効率性に焦点をあてる一方で、とりわけ炭素削減が困難な分野において清浄水素の使用を促進する。

輸送が容易なエネルギー源、水素

Cost of shipping liquid hydrogen across regions, 2030 USD/kg

Source and expected cost level of low-carbon hydrogen in different regions

■ Distribution
■ Production



1. Includes liquefaction, terminals, and shipping
SOURCE: McKinsey Energy Insights

Hydrogen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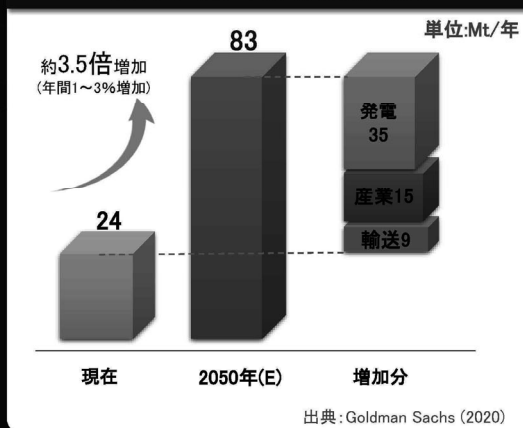
液化水素
LNGに使用されるものと
同様な技術。2030年ま
で最も安価な輸送方法。

Path to hydrogen
competitiveness
A cost perspective
2020.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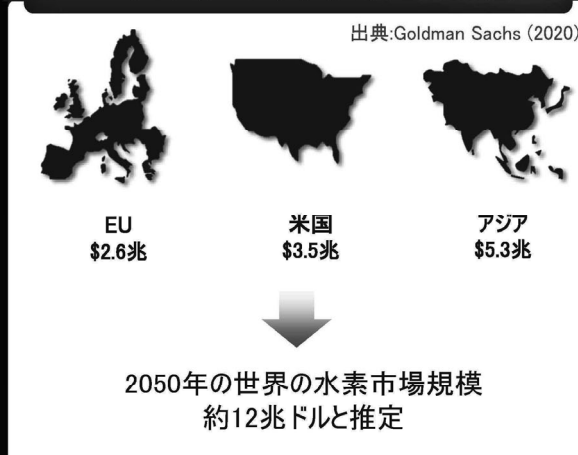
世界の水素市場の展望

H2KOREA
수소산업진흥원

2050年のヨーロッパの水素需要



2050年の世界の水素市場の展望および効果



世界の主要各国の水素社会戦略

<p>EU/ドイ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再生可能エネルギーベースの水電解 グリーン水素生産施設構築拡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30年までに40GW規模/ドイツ: '40年までに10GW規模 グリーン水素の利用拡大および水素活用分野拡張 <ul style="list-style-type: none"> グリーン水素認証基準を整備、鉄鋼・石油化学などの産業分野でグリーン水素活用を拡大 	<p>日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活用した水素供給システム構築 <ul style="list-style-type: none"> 燃料電池車80万台、燃料電池バス1,200台、充填所900カ所 (2030) 海外の供給先多角化および国内の水電解技術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豪州→褐炭改質 ブルネイ→天然ガス改質 ノルウェー→水電解 サウジ→原油雑粗抽出
<p>豪州</p> <ul style="list-style-type: none"> グリーン水素の単価引下げ、エネルギー転換に関連する水素技術向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アジア市場のTop3水素輸出国 国策として認定を受けた認証制度を確保 	<p>米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燃料電池車の多様化 (常雇、SUV、トラックなど)、燃料電池発電拡大、水素タービンなど全分野の技術確保および競争力強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燃料電池車120万台、物流車両30万台、充填所5,800カ所 (2030) 水素発電Grid Parity達成 (2030)
<p>サウ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活用した世界最大4GW級水電解グリーン水素生産施設の構築および輸出国としての地位確立 <ul style="list-style-type: none"> 風力・太陽光を活用し650トン/日のグリーン水素生産を計画 (2025) 	<p>UA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再生可能エネルギー拡大により低価格な水電解水素を生産 <ul style="list-style-type: none"> ドバイ5GW規模の太陽光発電所構築 (2030) 「UAE2050エネルギー戦略」発表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力の割合50%に)

韓国の水素社会への移行過程

2019

1月: 水素社会活性化ロードマップ

4月: 標準化戦略ロードマップ

6月: 第3次エネルギー基本計画

10月: 新産業規制革新計画

10月: 水素インフラおよび水素充填所構築策

12月: 水素安全ロードマップ

12月: 未来型自動車産業発展戦略

12月: 水素技術ロードマップ

2020

2月: 水素法制定

2月: 水素法施行

7月: 水素経済委員会立ち上げ

7月: 未来型自動車普及および市場先取り戦略

10月: 韓国版ニューディール総合計画

10月: 第2次水素経済委員会

12月: 2050 ネットゼロ宣言

2021

3月: 第3次水素経済委員会

2050년 탄소중립 선언

水素社会活性化ロードマップ(2019.01.17)



世界最高水準の水素社会リーディング国家へと飛躍

	2018	2022	2030	2040
	1.8千台 (内需0.9万台)	8.1万台 (内需6.7万台)	内需85万台	620万台(内需290万台)
	14ヶ所	310ヶ所	660ヶ所	1,200ヶ所
	307 MW	1.5 GW (内需1 GW)	内需2.0 GW	15 GW (内需8 GW)
	13万トン/年	47万トン/年	194万トン/年	526万トン/年
	8,000ウオン/ kg (政策価格)	6,000ウオン/ kg	4,000ウオン/ kg	3,000ウオン/ kg
	副生水素	副生水素 LNG改質水素	副生水素 LNG改質水素 水電解、海外輸入	副生水素 LNG改質水素 水電解、海外輸入

韓国の燃料電池車開発現況



環境汚染削減に向け燃料電池乗用車・バス・トラック・トラムの普及拡大を推進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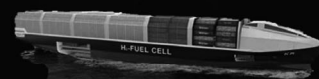
高性能燃料電池システムの適用を水素モビリティの全分野に拡大



燃料電池システム



燃料電池トラック



水素船舶



燃料電池トラ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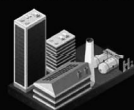
水素航空機



携帯用
燃料電池



家庭用
燃料電池の活用



産業用、ビル用
燃料電池の活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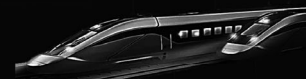
高性能車



新概念の輸送手段



UAM



燃料電池高速鉄道

水素充填および生産インフラの拡大



水素充填所



液化水素充填所

水素輸送方式



高圧チューブトレーラ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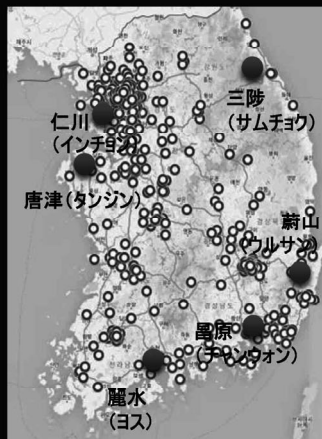
配管輸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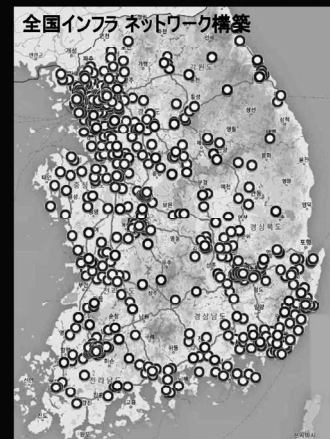
液化水素タンクローリー

経済性、拡張性、地域特性を考慮したインフラ構築

2030 : 660基



2040 : 1,200基(バス充填所200基含む)



● 水素生産基地(予想)

韓国の水素産業の現況



燃料電池車と水素充填所の普及

- 乗用車 15,660台 (2021年7月時点)
- バス 106台、タクシー 20台
※水素モビリティによる公共交通機関(～2040)
タクシー 80,000台、バス 40,000台、トラック 30,000台



水素充填所:110基

- 世宗政府庁舎水素充填所竣工(2020.8.31)
- 水素充填所310基の構築を目標(～2022年)

発電用燃料電池

- 燃料電池:計 674MW(2021.07)
- 建物用:7.1MW (2020年時点)



世界初の腐生水素発電所構築(2020.7, テサン)



京畿グリーンエネルギー(68.5MW)

地域別水素関連特化産業



<p>水素エネルギークラスター</p> <p>バイオガス利用水素用複合充填所 移動式水素充填システム アンモニアベースのグリーン水素生産 水素産業分野技術・素材部品開発支援 水素安全体験教育館 水素商用車部品評価センター 水素用品試験研究院、水素安全技術院</p>	<p>水素R&D特化都市 サムチョク市</p> <p>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活用した住居地統合 エネルギー管理体系の開発実証地 水素ドローン実験館構築</p>
<p>水素安全クラスター</p> <p>規制サンドボックス 国会、ヤンジュ、タンジョン</p>	<p>水素貯蔵運送クラスター サムチョク市、トンハ市</p> <p>サムチョク市:グリーンエネルギーパークスマート 都市など試験サービス支援 トンハ市:P2G実証センター</p>
<p>都市地域水素充填所(実証特別、脚注付可) 水素充填所設置・財助する規 免給付法 (用途地域制限、建、車規制あり)</p>	<p>分散型小規模生産基地 サムアック市</p> <p>生産規模:1000g/日以上 水素生産(天然ガス改質) ⇒水素バス充填所をまず普及</p>
<p>首都圏埋立地のバイオガス利用 大規模水素生産システム構築 素材・部品・装置開発および運保実証など</p>	<p>燃料電池発電クラスター ポルン市</p> <p>発電用燃料電池認証センター構築 水素燃料電池製品の国産化実証団地・ 産業化団地造成</p>
<p>水素生産(天然ガス改質) 潮力発電所余剰電力⇒水電解 住宅分野の水素エネルギー活用</p>	<p>規制自由特区</p> <p>水素燃料電池の室内流通搬送機械 水素燃料電池給排の商用化 大容量水素チューブトレーラー実証</p>
<p>生産規模:5000g/日 水素価格引下げ可能と予想 (8800ウォン/kg → 5500ウォン/kg)</p>	<p>水素モデル都市 アンサン市</p> <p>水素専用配管網10km構築 (モノのインターネット技術適用) ⇒都心内の建物と充電所を活用</p>
<p>分散型小規模生産基地 ピョンデク市</p>	<p>水素モデル都市 チョンジュ市、ワンジュ郡</p> <p>水素モビリティ活性化のための 企業誘致・インフラ構築・普及拡大 産学研連携クラスター構築目標</p>
<p>ワジナ郡:水素生産・広域供給基地 チョンジュ市:韓農村水素広域設置 燃料電池市内バス導入など</p>	<p>分散型小規模生産基地 チャンウォン市</p> <p>生産規模:1000g/日以上 ワジナ水素充填所と隣接の都市ガス配管 活用⇒チャンウォン市全域水素供給</p>
<p>セマソム内に再生エネルギー団地構築 ⇒グリーン水素生産</p>	<p>水素液化化実証プラント チャンウォン市</p> <p>水素液化・貯蔵装置構築:5000g/日 水素液化貯蔵装置国産化開発 水素液化プラントのコア技術・システム開発</p>
<p>水素生産クラスター</p>	<p>未来型自動車の コア部品開発</p> <p>装備構築、実証コア技術・企業支援 未来型自動車のコア部品開発? 事業化支援</p>

韓国、民間投資活性化計画発表(第3次水素経済委員会 2021.3月)



政府の水素経済政策に歩調を合わせ民間企業が合計43兆ウォンを投資
 2030年までの水素分野における中小・中堅企業の投資計画は1.2兆ウォン
 精油・ガス会社も未来の新産業といった観点から水素経済ビジョンを発表

2030年までの投資計画

SK	18.5兆ウォン	大規模液化プラント構築、水素生産、燃料電池発電拡大
HYUNDAI	11.1兆ウォン	水素モビリティR&Dおよび設備投資、関連インフラ(充填所など)投資
POSCO	10兆ウォン	副生水素生産、海外グリーン水素導入、水素還元製鉄開発
Hanwha	1.3兆ウォン	グリーン水素(水電解) R&D実証・生産、水素貯蔵設備など
HYOSUNG	1.2兆ウォン	液化プラント構築、液化および高圧気体充填所普及など
中小・中堅企業	1.2兆ウォン	家庭用燃料電池、グリーン水素R&D、水素抽出機および貯蔵容器など

国際協力ネットワーク



水素産業分野における韓日協力のメリット

- グローバルな水素社会への転換のためには国際協力が何よりも重要
- とりわけ韓国と日本は民間産業協力のための地理的メリットが大きい
- 両国は水素分野の技術水準が高く、技術協力によるシナジーが大きいと予想
→ Win-Win戦略を準備することが先決
- 両国はエネルギーの輸入構造が類似しており、国際的水素流通のシナリオおよび国際標準などの共同開発が容易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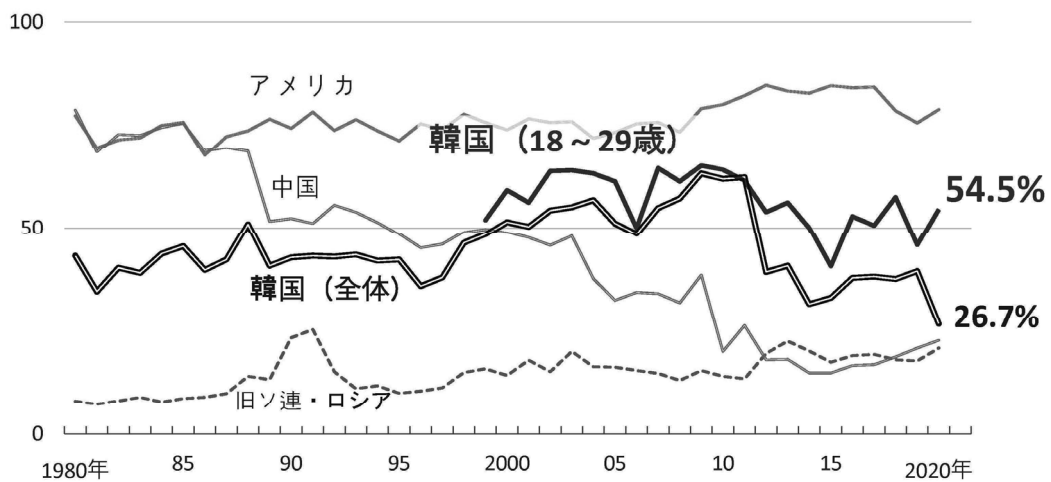


言葉は世界をつなぐ平和の礎
神田外語大学

若者達が切り開く未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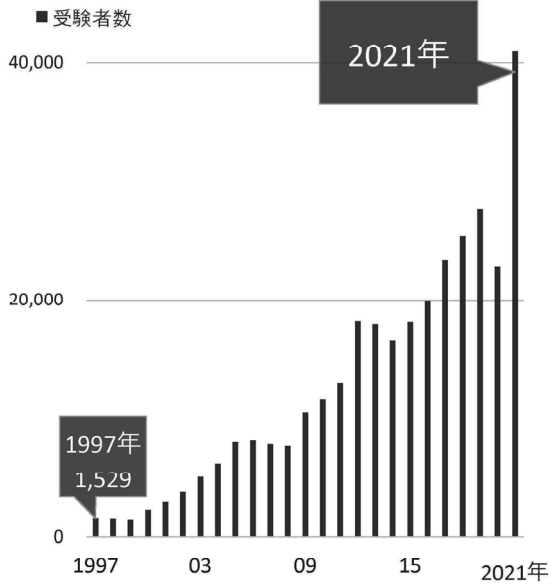
神田外語大学学長
宮内孝久

各国について「親しみを感じる」もしくは
「どちらかというとな親しみを感じる」と答えた割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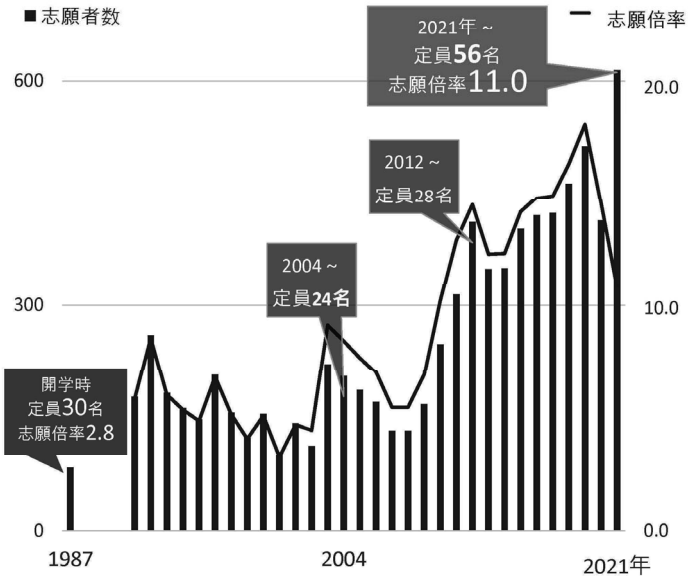
出展：内閣府「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1980～2020年）」
<https://survey.gov-online.go.jp/r02/r02-gaiko/index.html>

韓国語能力試験 (TOPIK) 受験者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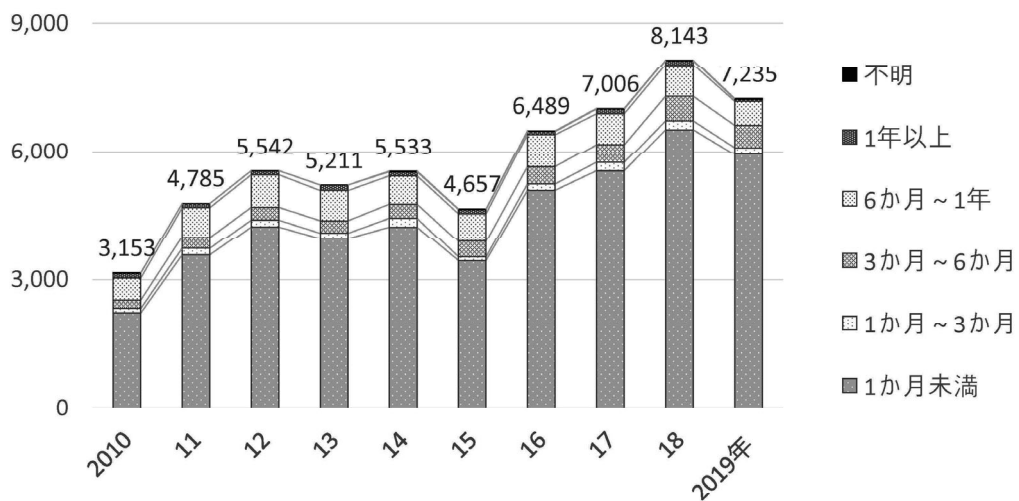
韓国教育財団様よりデータ供与

神田外語大学 外国語学部 韓国語学科 (~2011年) アジア言語学科韓国語専攻 (2012年~) 志願倍率推移



<https://www.kandagaigo.ac.jp/kuis/news/100952/>

韓国への日本人留学生数推移 (留学期間別)



出展：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JASSO)「留学生調査」

神田外語大学 学生へのヒアリング

韓国留学予定・経験者22名を対象

- 韓国に興味を抱く時期・きっかけ
 - 多くは中学時代から関心を持ち始める
 - 母親が韓流ドラマにハマり、一緒に視聴しながら親しみを覚える
 - 高校から周囲の生徒もTWICE、BTSを聴くようになった
- K-POPアイドルの魅力
 - 抜群の歌唱力とダンスパワー
 - 厳しい競争を勝ち抜いたプロフェッショナル
(⇔日本のアイドルの可愛らしさとの対比)
- 学内にも100名以上が在籍するK-popダンスサークルがある

韓国語学習のすすめ

- 日本語と文法が類似しており、外国語でありながら馴染みやすい
- 短時間で習得を実感しやすく、自己肯定感・学習意欲が高まる
- 留学した学生からの声
 - 「思いやりがあり情が深い」
 - 「日本人を特別扱いせず、身内として受け入れる」
 - 「日本の下町のような情の社会が魅力」

今後の課題

- 韓国語を学んだ学生の就職機会創出
- 漢字文化圏の見直し

韓国から学ぶ

- 日本人は韓国から闘争心を学ぶべきである
 - 中国「騙されるな」
 - 韓国「負けるな」
 - 日本「世間に迷惑をかけるな」
- 外交、ビジネス交渉、競争
- 若者は短期間でも韓国留学を